

포천의 암각문

홍 순 석



포천문화원

1997

향토문화유적사료(4)

포천의 암각문

홍 순 석

1997

포천문화원

간행사

포천은 예로부터 문향(文鄉)과 경승(景勝)으로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포천향교와 용연·화산·옥병서원은 바로 포천의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곳이며, 영평팔경(永平八景)은 경승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영평천을 끼고 형성된 화적연·금수정·창옥병·와룡암·낙귀정지·백로주·청학동·선유담 등 팔경은 경승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포천의 명인·명필들의 묵적(墨跡)이 암각문으로 전하고 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추동리와 화봉산에는 화서학과 문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새겨 놓은 암각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야말로 우리 포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유산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으니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 문화원에서는 1993년도부터 강남대 홍순석 교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왔습니다. 그 동안 옥병동의 암각문은 학계에 발표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의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포천문화원에서는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은 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의 암각문』을 간행키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5년간의 조사와 검토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더욱이 금석문자료집은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만, 암각문자료집은 아직 한 권도 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징적인 향토문화유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학계까지 보고함으로써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마음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일은 포천 지역에 산재한 암각문 자료를 제한된 여건상 이 책에 모두 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속히 행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특색에 걸맞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책자가 포천의 향토문화 연구는 물론, 금석학 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근 5년간 포천의 각 지역을 답사하며 고생하신 강남대 홍순석 교수와 학술조사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1997년 2월 일

포천문화원장

崔宗圭 拜

책머리에

암각문은 분명 금석문의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금석문 자료집이나 관련 연구물에 소개된 예는 별반 없다. 반면, 암각화는 선사 시대 유적의 하나로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암각화가 바위나 절벽 등에 그림을 새겨 놓은 것이라면, 암각문은 문자를 새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암각문은 전국 도처의 경승지나 유적지에 산재해 있다. 옛날부터 시인·묵객들은 자신의 회포를, 지사들은 결연한 의지를 바위 등에 새겨 놓았다. 명필가의 목적이 암각문으로 전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자료들이 방심 속에 케멸되어 가고 있음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그같은 안타까움에 암각문을 조사하고 정리해온 지도 10여년이 넘는다. 탁본도 꽤나 된다. 이제 그 한 부분을 정리해 책자로 펴내려는 것이다.

포천 지역의 암각문은 포천문화원의 지원으로 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옥병동의 암각문은 학계에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 더욱 감개한 일이다. 금년에는 문화원의 지원으

로 출판까지 가능해졌다.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막상 출판을 결정하고 나니 두려움이 앞선다. 처음으로 출판되는 암각문에 관련한 책자라는 사실도 그렇고, 아직 미확인된 자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둘러 내는 이유도 없지 않다.

그 동안 자료의 제보나 현장 안내 등 궂은 일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최종규 원장님께 모든 성과를 돌리고 싶다. 최원장님의 지원과 독려가 아니었으면, 이 작은 책자나마 세상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것을 일깨워 준 분도 최원장님이시다. 항상 불평을 감추고 고생을 같이 해준 조직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포천의 향토문화 연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금석문 연구에 작은 받침돌이 된다면 더없는 기쁨일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현장조사와 고증 작업이 거듭 보태져서 더욱 알차게 꾸며지길 기원한다.

1997년 2월 일

洪 順 錫 識

포천의 암각문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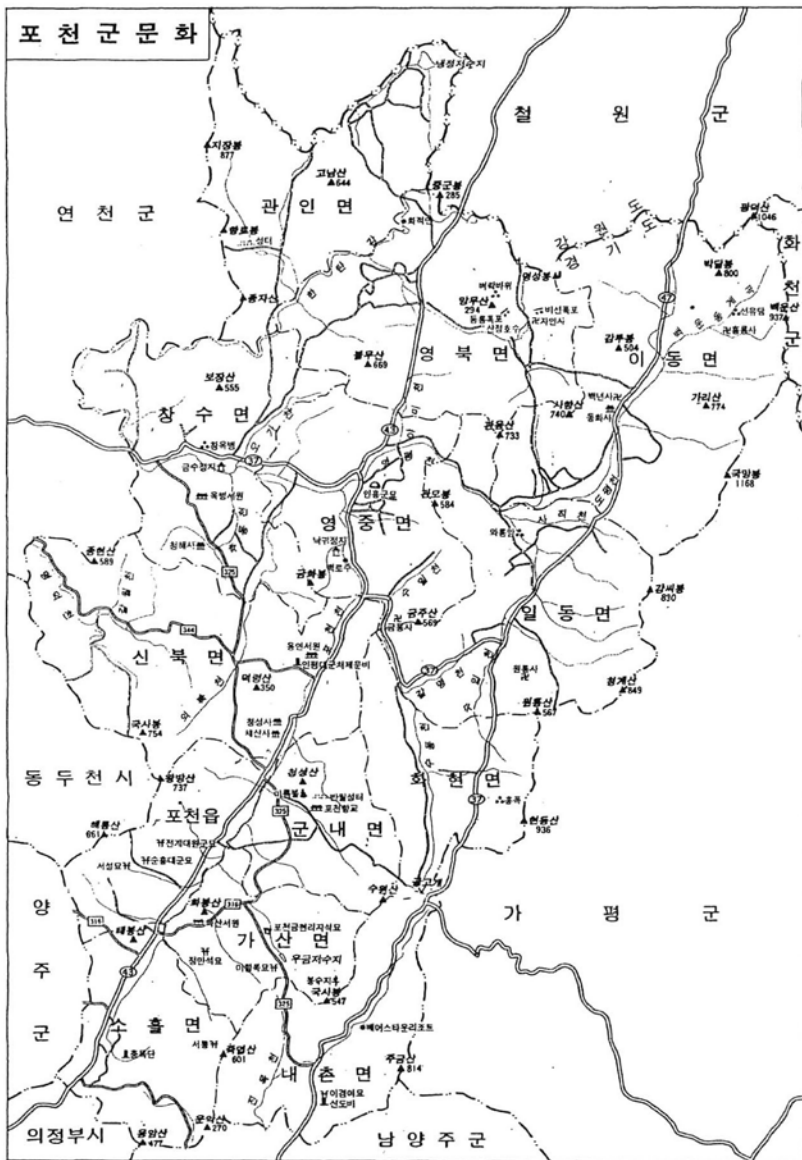
* 책머리에

1. 옥병동(玉屏洞) 7
2. 금수정(金水亭) 49
3. 백로주(白露洲) 89
4. 추동리(楸洞里) · 화봉산(花峯山) 109

* 맺는말 / 138

* 참고문헌 / 143

〈도면1〉 포천군 문화지도



1

옥병동 암각문

조사경위

필자는 1993년 7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남대 학술조사단을 이끌고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에 소재한 玉屏洞 巖刻文을 조사한 바 있다. 본래 학술조사단은 '93년도 4월부터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로부터 경기도내 훼손서원 조사를 위촉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7월 22일, 포천군 옥병서원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李鍾堧 씨의 안내로 옥병동 암벽에 새겨진 암각문을 접하고, 비로소 1차 조사를 하게 되었다. 1차 조사 이후 문헌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사료적 가치가 예측되어 7월 25일 강남대 학술조사단을 이끌고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시 발견한 암각문 8점을 탁본하고, 아울러 미확인된 암각문을 재조사하였다. 이때 「吐雲床」, 「靑鶴臺」 등 2점의 암각문을 발굴 확인하였다. 이후 『思菴集』, 『農巖集』 등 고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옥병동 암각문의 제작 연대·書體·刻字한 石手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사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포천군청에 문화재 지정을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10월 6일에는 자료 사진 촬영차 현지를 답사하여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결정적인 자료인 「二養亭」, 「玉屏洞」 외 2편의 암각문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10월 30일에는 향토사연구전국학술대회(제7회)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 글은 그때 발표한 논문을 보충하고, 이후 재확인한 자료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옥병동 암각문의 주변 상황

1) 영평팔경의 하나인 창옥병

경기도 포천군에는 예로부터 영평팔경(永平八景)으로 불려지는 명소가 있다. 영평은 포천의 옛이름이다. 영평천 상류에서 하류에 펼쳐진 화적연(禾積淵)·금수정(金水亭)·창옥병(蒼玉屏)·와룡암(臥龍岩)·낙귀정지(樂歸亭址)·백로주(白鷺洲)·청학동(靑鶴洞)·선유담(仙遊潭)이 바로 영평팔경이다. 이 영평팔경을 노래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자못 흥미롭다.

「화적연에서 벼를 털어, 금수로 술을 빚어, 창옥병에 넣어 들고, 와룡을 빚겨 타고, 낙귀정으로 돌아오니, 백로는 횡강(橫江)하고, 청학은 날아드니, 선유담이 예 아니냐.」

구전으로 현지에 전하는 이 노래에서 영평팔경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영평의 문사들은 물론, 외지에서 이 곳을 방문한 많은 시인 문객들도 영평팔경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작품으로 <영평잡영(永平雜詠)>이라는 제목의 시가 2편이 있는데,¹⁾ 모두 영평의 승

경과 순박한 지역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창옥병은 포천군 창수면에 있는 영평팔경의 하나이다. 이름에서 말해 주듯 푸른빛의 구슬 병풍을 펼쳐 놓은 듯한 바위산의 경치는 가히 장관이다. 깎은 듯한 절벽이라 해도 굴곡이 있고, 고저가 있고 암혈이 있는가 하면, 가진 형태의 동물모양이 되어 돌출한 바위도 있다. 전체가 반달처럼 펼쳐진 바위 병풍은 그 폭을 한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하고, 높이가 4, 50척에서 백척이나 된다. 이 일대의 전수량을 모아 가지고 보장산(寶藏山)과 일대 충돌하는 첫 접전면이 바로 이 창옥병이다. 이러한 경관을 두고 옛 시인 묵객들은 시상을 억제치 못하였다. 특히 양사언(楊士彦)은 이 곳 사람으로 도처에 정자를 지어 놓고 풍류를 일삼았다. 박순은 만년에 이곳에 우거하며 여생을 마쳤고, 이의건(李義健)·김수항(金壽恒)·김창협(金昌協) 등도 자주 찾아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옥병서원의 좌측 강변에는 암반이 강 가운데까지 기교한 형상으로 뻗어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²⁾

2) 사암 박순의 소요지인 창옥병

사암 박순(1523-158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우윤(右尹)을 지낸 우(祐)의 아들이며,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조카이다. 1553년

1) cf., 『思菴集』 2;3a, 3;19b.

2) cf., 『堅城誌』, 『抱川郡誌』(포천군, 1987).

(명종5)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거쳐 응교로 있을 때 임백령(林百齡)의 시호(諡號) 문제로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사서 파면되었으며, 향리인 나주로 퇴거하였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한산군수로 선정을 베풀었고, 홍문관 직제학·승정원 동부승지·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565년(명종20) 대사간으로 있을 때 윤원형을 탄핵함으로써 척신 일당을 제거한 주역이 되었다. 그뒤 대사헌·대제학·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 등 여러 벼슬 지내고 1572년(선조5) 영의정에 올라 15년간 재직하였다. 일찌기 서경덕(徐敬德)에게 성리학을 배워 통달하였으며, 중년에는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사사하였다. 만년에 이이(李珥)·성혼(成渾)·기대승(奇大升)과 깊이 사귀어 교분이 두터웠다. 문장과 글씨로도 명성이 있었다.

박순이 영평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병술년(1586) 8월의 일이다. 이이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다가 도리어 탄핵을 받고, 스스로 물러나려 하였다. 이 때 선조는 여러 차례 만류하였지만, 그는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도성을 떠날 때 임금께서 내사(內使)를 보내어 동문 밖에서 술을 내렸다고 한다. 사암은 그 길로 지금의 창수면 옥병동에 배견와(拜鵲窩)를 짓고 거주하였다. 칠언절구인 <숙배후귀영평(肅拜後歸永平)>이라는 시는 바로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영평에 돌아와서 지은 작품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임금의 심려를 괴롭히기 보다는 물러나 있음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참잡한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³⁾ <복거(卜居)>라는 시에서는 우두천(牛頭川)가에 집을 짓고 농사일 하며 지내는데, 평소 농사일 배우지 아니하여 팽이질조차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⁴⁾

3) cf., 『思菴集』 2:1a.

또한, <차기연사운(次寄然師韻)>이라는 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천연사라는 스님의 권유가 사암이 영평에 거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

「천연사는 영평 보장산에 살았다. 내가 영평에 자리잡아 살려고 한다고 하니, 천연사가 일찌기 우두연의 좋은 경치를 말하면서, 그 물가에 양씨의 정자가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사라고 권했다. 천연사가 막 거처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⁵⁾

사암은 거처를 영평에 자리잡은 이후부터는 창옥병 주변의 경계를 완상하며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일체 말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촌노들과 함께 친밀히 교유하였다. 그가 여생을 창옥병 주변에서 소요하며 지냈음은 그의 문집인 『사암집』 도처에서 살필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자료이다.

「병술년(1586, 선조20) 중추에 영평에 왔다. 그곳의 산천을 구경하고 마음에 들어 드디어 자리를 정하였다.」⁶⁾

「병술년 8월에 휴가를 청하여 영평에 퇴거하였는데, 임금께서 내사를 보내어 동문 밖에서 술을 내렸다. 영평에는 백운산이 있어 시내와 못이 뛰어났다. 공은 그 길로 자리잡아 집을 짓고서 살며 완전히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말하지 않고, 매일같이 시골 백성과 야노들과 함께 자리

4) cf., 『思菴集』 2:1a.

5) “師住永平寶藏山 我欲卜居永平 師嘗說牛頭淵勝概 且上有楊氏亭 勸我買之 師方欲移錫 故云”(〈次寄然師韻〉, 『思菴集』 3:18b).

6) “余於丙戌仲秋 承恩 浴椒井于永平地 覽其溪山而心悅之 遂稅駕而居焉”(〈二養亭記〉 『思菴集』 4:18a).

를 다투며 친밀히 교유하였다. 배우러 오는 자가 있으면 서로 토론하며 즐거워하여 지칠줄 몰랐다. 배견와·이양정·토운상의 명칭이 있었고, 백운계·금수담·창옥병이 둘러 있어서 홍이 나면 지팡이와 나막신 차림으로 소요하였다.」⁷⁾

「선조 때 문충공 사암 박선생은 울곡·우계 제현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고 또한 종신이 되었다. 격렬한 당쟁에 노후를 영평 창옥병에 와서 보냈고, 배견와를 지어 유유자적하다가 돌아갔다.」⁸⁾

위의 기록에서 시사하듯이 사암은 배견와를 지어 머물면서 창옥병 주변의 경계마다 이름을 붙여두고 즐겼다. 자신의 집을 배견와라 이름 붙인 것은 창옥병에는 봄 여름 할 것 없이 두견새가 찾아와서 울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배견웅」이라고 자처하였다.⁹⁾ 다음의 <이양정기>는 창옥병 언덕 위에 이양정을 짓고 지은 기문인데, 창옥병 주변의 경계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더우기 옥병동 암각문의 내용을 증빙하는 문헌자료이기에 매우 중시된다. 번다하므로 옥병동 암각문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적기한다.

「우리 동방에서는 영평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나, 그중에서도 청령담이 더욱 유명하다. 그 수원은 백운산에서 시발하였다. 종현산 동쪽에서 흘러 나온 지류는 소에 이르러 다시 벼랑을 이루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바

7) “丙戌八月 乞暇 沐浴于永平 上遣中使 宣醞於東門外 永平有白雲山 溪潭節勝 公仍卜築居之 瀟灑出塵 口節時事 日與村氓野老 爭席忘形 有來學者 則相與討論 齋齋不倦 有拜鵲窩二養亭土雲床名號 還以白雲溪金水潭蒼玉屏 興至 杖屨逍遙 或游楓岳諸山”(宋時烈 撰, <思菴朴淳神道碑銘>).

8) 金平默, <玉屏影堂記>.

9) cf., <拜鵲窩>(<『思菴集』 2:3b).

닥에는 모두 반석으로 깔려 있고, 반석 중에서도 높은 것은 솟아 올라 혹은 거북이 모양을 하고, 혹은 용인양 꿈틀거리는 듯하다. 소를 굽어보며 대를 이룬 것이 넷인데, 하나는 백학이요, 다른 하나는 청학이다. 백학이 청학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실만 같다. 또 다른 것은 산금대와 수경대이다. 중간에는 석상이 있는데 토운상이다. 바위의 뿌리가 물 속에 울퉁불퉁하고 한 말이나 들어가는 파인 곳이 있어 그것을 와준이라고 한다. 서쪽으로 깊은 소가 있으니 이름하여 명옥연이라 한다. 큰 암벽이 마치 하늘을 기대어 우뚝 서 있고, 그의 뿌리로 깊은沼에 잠겨 마치 조화의 극치를 자랑하는 듯한 창옥병이 그 대표라 하겠다. 소 저편에 초가집을 세웠는데 배견와라 이름하였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을 대하고 있고,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¹⁰⁾

사암은 이처럼 창옥병 주변의 절승처에 이름 붙이고, 그곳에서 소요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시 가운데 “영평의 시냇물 돌에 쓰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작품, <제영평계석>¹¹⁾ <제영평계석상>¹²⁾ <제영평계석상>¹³⁾ 등이 그같은 사실을 충분히 증빙하고 있다.

다음 시 <창옥병>에서는 사암이 창옥병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10) “吾東方山水 此縣最名 由縣而言 清泠潭 其尤也 卽白雲溪之所渚 而源發白雲山也 鍾賢東支 至潭作崖 故水底 皆布全石 高者露出 詭怪錯陳 有若龜龍曝日 島嶼浮溟崖之嵒巖 俯潭爲臺者四 曰白鶴 曰青鶴 白者或乘青者一隻 時往來洲渚 皆其實也 餘曰散襟 曰水鏡 中介石床 曰吐雲 巖足陂陀於水心 有窪容斗 曰窪尊 潭瀉長灘 西折而淵 曰鳴玉 大壁倚天根 浸灘淵 極造化之剗剗 曰蒼玉屏 蒼茅潭西 曰拜鵲窩 又就潭嶠最峻處 規爲草亭 曰二養 觀其左 當大壁 右聯四臺”(朴淳 撰, <二養亭記> 『思菴集』 4:18b-19b).

11) cf., 『思菴集』 1:8b.

12) cf., 『思菴集』 2:22b.

13) cf., 『思菴集』 2:31a.

상제가 곤륜산의 천길되는 석골을 오려내어
 온갖 신령이 분주하게 아로새기는 수고를 했다.
 높고 험하게 거꾸로 꽂혀 있는 바다거북의 굴을
 도리어 사암을 시켜 세상에 나와 보게 하였구나.

帝剪崑丘千丈骨
 百靈奔走費雕剜
 巉巖倒挿龜窟
 還使思菴出世看¹⁴⁾

사암은 이 시에서 창옥병은 상제가 신선에게 명하여 아로새긴 것이라는 격찬과 자신이 그곳에 머물게 된 것도 상제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가 처음 영평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은 작품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처음 작품이 시류에 물리어 재상직에서 물러나 산야에 묻혀 살아야 함을 탄식한 것이라면, 이 작품에서는 창옥병에서 매우 만족해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후학 김창협이 지은 <창옥병 2수>라는 작품 가운데도 사암이 창옥병 도처에 발자취를 남겼음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그 두번째 시의 일부이다. 이 시 전반부에서는 영의정 벼슬을 마다하고 물러난 사암의 덕망과 경륜을 칭송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사암의 자취가 남겨진 배견와, 백학대 등에서의 감흥을 노래하였다.

봄 저물어 가는데 슬픈 두견새는 아직도 사당에서 울고
 하늘 비어 있는데 백학은 대(臺)로 돌아오지 않는다

14) 『思菴集』 2;1b.

16 포천의 암각문

지금까지도 무우(舞雩)에서 바람쐬는 흥취 추억하지만
그분 따라 목욕하고 읊조리며 돌아온적 없어 한스럽다.

春暮哀鵑還哭廟
天空白鶴不歸臺
嵇今尙憶風雩興
恨未曾隨浴詠廻¹⁵⁾

도암(陶巖) 이재(李緯)가 지은 <방창옥병>이라는 작품에도 사암의 자취가 역력히 그려져 있다. 해당 부분만 적기한다.

배견와는 비어 있고 산은 적적하며
산협은 돌아가는데 안개 자욱하다
시냇물은 와준의 돌을 파고 들고
바위 단풍은 사당 뜰에 떨어진다.

窩空山寂寂
峽轉霧冥冥
溪水侵樽石
巖楓落廟庭¹⁶⁾

이 시의 소재가 된 배견와, 와준은 모두 사암의 유적이다. 창옥병을 찾는 이라면 으레 사암의 인품과 학문, 그리고 사암이 이름붙인 여러 명소를 감회 깊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만큼 창옥병과 사암의 관계는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15) 『思菴集』附錄.

16) 『思菴集』附錄.

3) 옥병서원(玉屏書院)

사암 박순과 관련한 유적지로 옥병서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서원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포천 유림이 세운 서원이다. 현재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 210번지에 위치한다.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사암이 만년에 살았던 배견와 터에 서원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사우만 창건하였다. 1658년(효종9)에 비로소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였으며, 1680년(숙종6)에는 영정을 봉안하였다. 1698년(숙종24)에 영의정 신원(申玩)의 주청으로 이의건(李義健)과 김수항(金壽恒)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713년(숙종39)에 「옥병(玉屏)」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1722(경종2년) 서원의 일부를 수리하였다. 그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오던 중 1871년(고종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시 훼손되었으며, 위패는 매안(埋安)하였다. 이때 이덕수(李德秀)라는 이가 영정을 궤에 담아 보관하였으며, 1892년(고종29) 이덕수·이난수(李蘭秀)를 비롯한 포천 유림의 공의로 서원터에 영당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고 중단된 향사를 부활하였다. 이때 김성대(金聲大)·이화보(李和甫)를 추가 배향하였다. 1926년에는 윤봉양(尹鳳陽)을 추가 배향하였다. 이후의 사실은 자세하지 않으나 6.25때 이 영당마저 회진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이어왔을 개연성이 짙다. 1978년에야 이명우(李命雨)를 회장으로 한 옥병서원복원추진회를 결성하여 1980년에 사당과 삼문을 복원하였다. 이듬해에 배향인물의 위패를 다시 봉안하였다. 이후 복원사업을 계속하여 담장과 동서재·홍살문을 복원하였다. 현재 경내 건물로는 6칸의 승헌각·신문·동재인 창옥재(蒼玉齋), 서재인 송월당(松月堂)이 있으며, 담장 밖에는 홍살문과 박순의 신도비가 있다.

비석은 2기인데, 1909년에 세운 구비와 1991년에 새로 세운 신도비다. 본래는 강당도 있었으나 복원하지 못하였고, 홍살문과 외삼문 사이에 주초만 남아 있다. 송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맞배집붕에 방풍판을 달았다. 그 안에는 중앙에 좌로부터 박순·이의건·김수항의 위패를 모셨으며, 좌측 벽면 쪽으로는 김성대·윤봉양을, 우측 벽면 쪽에는 이화보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경내의 현판은 모두 김충현의 글씨이다. 이서원에서는 매년 3월 중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5 변 5두이다. 재산으로는 전답 5,000평이 있다. 현재 포천군 향토유적 26호로 지정되어 있다.¹⁷⁾



17) 옥병서원에 관해서는 필자의 「경기도 훼손서원조사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문헌 자료로는 『典故大方』, 『太學志』, 『書院可攷』, 『堅城誌』, 『抱川郡誌』(포천군, 1987)가 있으며, 『思菴集』 『農巖集』 등에 書院重修記, 影禎奉安文, 賜額請願文 등이 실려 있다.

옥병동 암각문의 제작연대와 내용

1) 제작 연대

필자가 옥병동 암각문을 발굴 조사하기 이전에는 제작연대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대체로 이곳의 명사였던 봉래 양사언의 유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옥병서원장을 지낸 이윤성(李允應) 씨 등은 박순의 유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모두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양사언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그가 이곳의 출신으로 만년을 여기서 보냈으며, 창옥병 주변에는 금수정을 비롯하여 그가 지은 정자·누대가 널려 있었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현지에서는 옥병동 암각문을 양사언의 글씨로 보는 이가 많았다. 박순의 유적지로 본 견해는 이 암각문이 사암을 주벽으로 모신 옥병서원 바로 밑인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성해옹(成海應)은 옥병동의 암각문 중 가장 중시되는 선조(宣祖)의 윤음(綸音)을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썼다고 하였다. 그가 지은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 「창옥병」조에 보면 “선조가 박순을 일러 말하기

를, 「松筠節操 水月精神」이라 하였다. 우옹이 써서 산금대와 수정대 중간에 새겨놓았다”¹⁸⁾고 하였다. 이 글에서 말한 ‘우옹’은 바로 우암 송시열을 지칭한다.

그동안, 옥병동의 암각문을 두고 박순·양사언·송시열의 서체라는 주장이 함께 전해왔던 것이다. 사실, 이 옥병동의 암각문에 대해서는 『사암집』에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누구든 관심만 갖고 검토해 보았다면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사암의 <이양정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옥병동의 암각문은 사암이 이곳에 우거하면서 빼어난 경계마다 「청령담·백학대·청학대·산금대·수정대·토운상·명옥탄·와준」 등의 이름을 짓고 당시의 명필가 한 석봉의 필적으로 암벽에 새겨둔 것이라고 한다. <이양정기> 말미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름짓고 기록한 사람은 이양정 주인이다. 그 큰 글씨와 작은 글씨를 쓴 사람은 주부 한호이다. 그것을 11개의 돌에 새긴 이는 솜씨가 뛰어난 신이(辛夷)이다. 이 해는 만력 16년이다.」¹⁹⁾

위의 자료는 옥병동 암각문에 관련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이다. 이 기록에 의하며, 옥병동의 바위에 일일이 이름붙인 이는 바로 이양정 주인인 사암 박순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명필가 한석봉이다. 이것을 바위에 새긴 이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은

18) “宣廟謂朴思菴曰 松筠節操 水月精神 尤翁書于散襟水鏡之間 而刻之”(成海應, 『東國名山記』 「蒼玉屏」).

19) “名而志之者 二養主人 筆其大字與小字者 韓主簿漢 鏤諸十有一石者 辛秀才夷也 時歲萬曆十六年也”(朴淳, <二養亭記>, 『思菴集』 4:19b).

만력 16년인 1588년(선조21)에 있었다. 옥병동 암각문은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나 된 자료인 셈이다.

조선조의 명필 한석봉이 이러한 암각문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 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단지 사암 박순이 영의정에 있었고, 한석봉이 당시 주부(主簿)로 있었다는 상하 관계에서만 이해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사암의 시 가운데 <답한별좌호래의(答韓別坐獲來意)>라는 작품이 있는데,²⁰⁾ 이는 한석봉이 사암의 거처를 방문하였을 때 고마움을 표하며 지어준 시이다. 다음 섯구에서도 사암과 한석봉은 남다른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대가 서예를 잘함을 알겠거니와
벼루 앞에서 몇 해를 배웠던가
마음은 혼탈무 가볍게 여기고
기세는 백운향의 신선을 위압한다.
한 글자로 나라를 빛날만 하여
목청 돌귀 노래하며 연경으로 향하네
돌아오면 각별한 상을 받을 터이고
어진 아내의 잠을 놀라 깨게 하리라.

見子工於藝
臨池學幾年
心輕渾脫舞
氣壓白雲仙
一字堪華國
高歌遠向燕

20) cf., 『思菴集』 2:11a-b.

歸來荷殊獎
驚罷孟光眠²¹⁾

위의 시는 사암의 <송한사과호부경(送韓司果濩赴京)>이라는 작품으로,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한석봉이 사과의 벼슬에 있을 때 연경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암이 그를 전송하며 지어준 시이다. 한석봉에게 지어준 시작품 2편만 들어 사암과 한석봉의 친분을 가늠한다는 것은無理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암이 한석봉을 남달리 아끼고, 한석봉 또한 사암을 방문하여 인사할 정도로 공경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1개나 되는 암각문 모두 한석봉의 글씨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시사한다.

다음 시는 사암 박순이 암각문을 새기고 난 뒤의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바위 모퉁이 글자 새기느라 애쓰며 시일을 소비한 것은
오래가도 하늘과 같이 남아 있기를 꾀해서이네
아! 눈 깜짝할 사이에 회갑에 따라
개울이 돌아가버리고 산이 묻히면 훗날 누가 알랴.

鏤字岩阿努費日
擬將悠久與天期
堪嗟一瞬隨灰劫
川勃山湮後孰知²²⁾

21) 『思菴集』 2:24b.

22) 『思菴集』, 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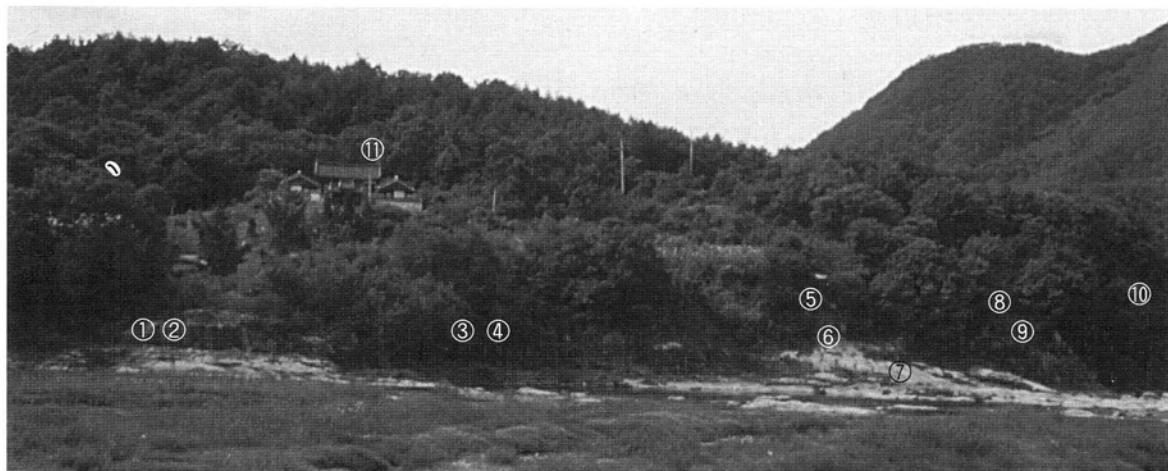
이 작품의 제목은 <亭臺溪岩 皆有名號 刻石其上 因感而賦之>이다. “정자 누대 시내 바위에 모두 이름이 있어 돌에 새기고 느낌이 있어 시를 짓는다.”는 뜻이다. 앞서 소개한 <이양정기>와 함께 옥병동 암각문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농암 김창협(1651-1708)의 시작품 <창옥병> 가운데 “푸른 이끼 끼고 침식된 글씨들 옛벽에 남았고 /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蒼蘇蝕題餘古壁, 綠波如酒漲窪樽)”라는 시구에서 시사하듯이 옥병동 암각문은 조선후기 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2) 옥병동 암각문의 내용

이상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옥병동 암각문을 발견된 지역별, 자료별로 편의상 구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옥병동 암각문 배치도



1. 宣祖綸音 2. 散襟臺 3. 題二養亭壁詩 4. 水鏡臺 5. 障瀾 6. 靑鶴臺
7. 吐雲床 8. 窪尊 9. 淸冷潭 10. 二養亭 11. 玉屏書院

〈자료1:1〉 선조 윤음(宣祖綸音)



松	節	氷	精
筠	操	月	神

* 글씨크기: 60×60cm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자료1;1>은 선조의 윤음을 암벽에 각자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다음에서 보듯이 증빙할 만한 기록이 충분히 있어서 그 내용과 제작연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상의 사람됨을 보니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 충용의 금도는 온화하고 우아하게 도와서 천성을 이루었고, 청신한 덕은 백옥을 가리우고 문채를 떨친다.」²³⁾

「우리 선조대왕께서 일찌기 교지를 내리시기를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분이 군부에게 이 해되어 기림을 받음이 또 이러하였으니 아름답고 대단하도다.」²⁴⁾

「양사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공이 당여를 옹호한다고 탄핵하고 열 가지 죄를 세기에까지 이르렀다. 임금께서는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²⁵⁾

「삼가 생각건대, 사암선생은 자신의 덕을 닦아서 안은 곧고 밝은 방정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근심을 먼저하고 즐거움을 뒤에 하였다. “염락의 인물에 개원천보의 시조”라고 한 중국 사신의 평에 부끄럽지 않았으며,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라고 한 성조의 칭찬에 진실로 부합하였다.」²⁶⁾

23) “但見領相之爲人也 松筠節操 水月精神 忠勇之度 輔溫雅而成性 清慎之德 掩白玉而振彩”(李選 撰, <行狀>).

24) “惟我宣祖大王 嘗教曰 若朴某 松筠節操 水月精神 其爲君父所知獎 又若是 猗歟盛哉”(李選 撰, <行狀>).

25) “至於兩司交章 劾公以護黨 數其十罪 上曰 朴某 松筠節操 水月精神 執不允”(李恒福 撰, <諡狀>).

26) “恭惟思菴先生,修身則內直外方 立朝則先優後樂 謙洛人物 開天詩調 不愧皇華之評 松筠節操 水月精神 允符聖祖之獎”(金壽恒 撰, <玉屏書院上樑文>).

「선대의 정신 영의정 박순의 도덕이 높고 낮음은 신등은 실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일찌기 듣기에는 우리 선조대왕께서 하교를 내려 포상하며 말씀하시기를 ‘松筠節操 水月精神’ 여덟 자로써 하셨습니다. 윤음의 밝기는 해와 달과 같아 비록 깊은 골짜기의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외어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²⁷⁾

계미년(선조16, 1583)에 율곡 이이가 탄핵을 받고 돌아가게 되자 우계 성혼이 글을 올려 구해(救解)하였다. 임금께서는 대신들에게 성혼이 올린 상소의 옳고 그름과 이이의 죄의 유무를 물으시었다. 사암이 먼저 말하기를 그 때 사람들이 율곡과 뜻이 맞지 않아서 탄핵하여 제거하려까지 하였으니 공론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율곡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자를 유배토록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한 때 논란이 매우 격조해졌다. 양사에서는 번갈아 글을 올려 사암이 당여를 옹호한다고 탄핵하며 열 가지 죄를 세기에 이르렀다. 선조는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사에서 없는 말을 날조하여 사암 박순을 헐뜯어 상소하였다고 분개하였다. 비록 십년 동안 논핵한다 해도 따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박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히 교서를 내리어 삼사의 직책에 있는 자는 외직에 보냈고, 논핵을 주도한 이는 변경으로 유배토록 하였다. 사암은 자신의 일 때문에 조정이 불안해지자 영평으로 물러나 있었다.²⁸⁾

위의 사실에서 <자료1;1>은 1583년(선조16)에 박순에게 내린 하교의 내용이며, 이것을 나중에 박순이 창옥병 암벽에 각자한 것이 분명해진다

27) “先正臣領議政朴淳淳之道德崇庫 臣等誠不足以知之 然竊嘗聞 我宣祖大王嘗下敎褒之曰 松筠節操水月精神八字 綸音炳若日星 雖窮鄉末學 亦能誦而傳之”(『代永平儒生請玉屏書院賜額疏』, 『農巖集』 7:19).

28) cf., <行狀> <諡狀>.

다. 글씨는 <이양정기>에서 밝혔듯이 한석봉이 썼고, 이를 새긴 이는 신이라는 석공이다. 네 폭의 병풍에 두 글자씩 써 놓은 것처럼 바위병풍이 둘러져 있어 경관으로도 최고이다. 더우기 이 자료는 농암 김창협이 말했듯이 “운음의 밝기는 해와 달과 같아 비록 깊은 골짜기의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외어서 전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사암이 선조 임금으로부터 받은 “松竹 節操 水月 精神” 여덟 자의 깊은 뜻은 이 곳의 관리는 물론,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오랜 동안 전해져 온 것이다.

<자료1:2> 산금대(散襟臺)

<자료1:2>는 <자료1:1> 바로 곁에 각자 되었지만, 서로 별개의 자료이다. 각자한 곳이 「산금대」임을 표시한 암각문이다. 글씨체는 <자료1:1>과 동일한 한석봉의 것이다. 각자한 사람과 연대도 같다.

산금대는 누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나 자세하지 않다. 사암을 비롯한 여러 문인 풍류객들이 옷을 풀어 헤치고 마음껏 승경을 완상하며, 시흥과 취흥을 즐겼던 곳이 아닌가 한다.



散
襟
臺

*글씨크기: 18×20cm

*제작연대: 1588년
(선조21)

〈자료1:3〉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

〈자료1:3〉은 박순의 〈제이양정벽〉이라는 시를 김수증(1624-1701)이 써서 암각한 것이다. 창옥병 암각문에서 유독 이 자료만 글씨체가 다르다. 굳이 글씨 쓴 사람을 시문 곁에 각자한 것도 이 때문인가 한다.



先	便	水	憐	寂	一	谷
生	帶	纔	白	散	箇	鳥
詩	淤	出	鶴	群	匡	時
金	右	山	臺	書	牀	時
壽	思	門	前	每	寂	聞
增	菴					
書						

* 글씨크기: 18×18cm

* 제작연대: 1700년 전후

시의 제목이 쓰여 있지 않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시문의 내용과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순이 이양정을 지은 연대가 1588년(선조 21)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 시는 그 이후 지은 것임에 틀림없다. 김수증이 이 시를 예서체로 쓴 시기도 자세하지 않은데, 대략 1700년경이 아닌가 한다. 김수증은 옥병서원에 배향하고 있는 김수항(金壽恒)의 형이다.²⁹⁾ 조카인 김창집·김창협·김창흡이 기사환국(1689년) 이후 영평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창옥병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가 죽은 해가 1701년이고 보면, 기사환국 이후부터 10여년 사이에 <자료1;3>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글씨를 암벽에 새긴 이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은 이양정과 이 암각문이 새겨져 있는 암벽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이양정 밑 암벽에 「二養亭」이라는 한석봉의 글씨가 남아 있는데, 굳이 현재의 위치에 <제이양정벽>이라는 시를 걸맞지 않게 새긴 저의를 알 수 없다. 참고로 이 작품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골짜기의 새소리 때때로 한 마디씩 들려오는데
침상은 쓸쓸하고 여러 책들 흩어져 있네.
언제나 안타까운건, 백학대 앞의 물로써

29) 이 글씨를 쓴 김수증(1624-1701)은 조선 후기의 문신·성리학자·서예가이다. 자는 延之, 호는 谷雲, 본관은 안동이다. 金尙憲의 손자이다. 젊어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금강산 등 여러 곳을 유람하였다. 성천부사로 있던 중 동생인 金壽恒이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동에 있는 籠水精舍에 은거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동생 김수항과 송시열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악산 골짜기에 은둔하였다. 이 때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글씨로도 유명하였는데, 圃隱先生神道碑·石室書院廟庭記 등 많은 비문에 그의 필적이 남아 있다. 춘천의 春睡影堂에 제향되었으며, 문집으로 『谷雲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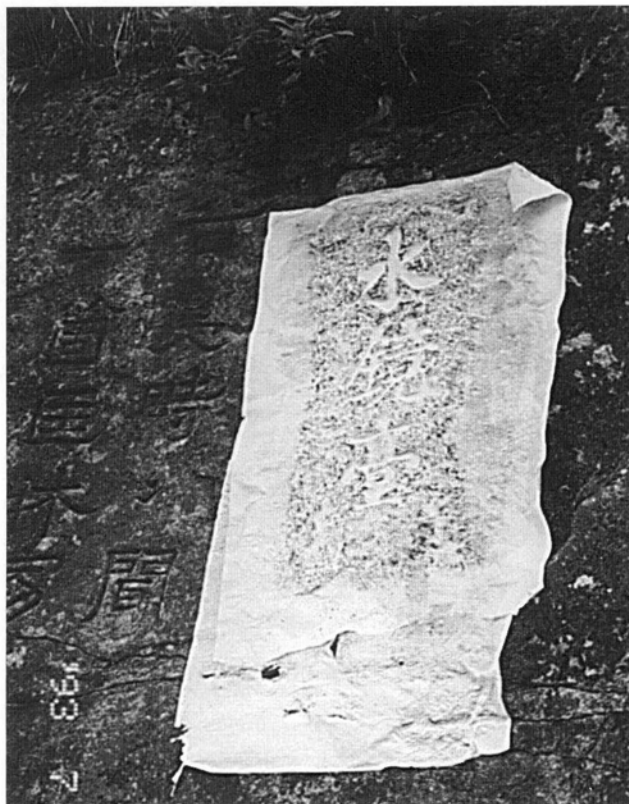
산 입구를 겨우 나가면 곧 흙탕물을 떠다네.

谷鳥時時聞一箇
 匡牀寂寂散群書
 每憐白鶴臺前水
 纔出山門便帶淤³⁰⁾

〈자료1:4〉 수경대(水鏡臺)

<자료1:4>는 <자료1:3>과 같은 시기에 각자한 것으로, 그 곳이 수경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암각한 것이다. <제이양정벽> 시작품 바로 곁에 각자되어 있기 때문에 혹간 이것이 시의 제목이 아닌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서체를 살펴보면 그런 오해는 쉽게 사라진다. 「水鏡臺」 세 글자는 한석봉의 해서체로 각자되어 있고, 시문은 예서체이다. 현지의 상황으로는 이 암각문 위에 누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옛 시인들의 시구에 “수경대에 고요한 달빛은 마치 선경을 망볼케 한다”고 하였다.

30) 『思菴集』 2;33b.



水
鏡
臺

* 글씨크기: 18×20cm

* 제작연대: 1588년

〈자료1:5〉 장란(障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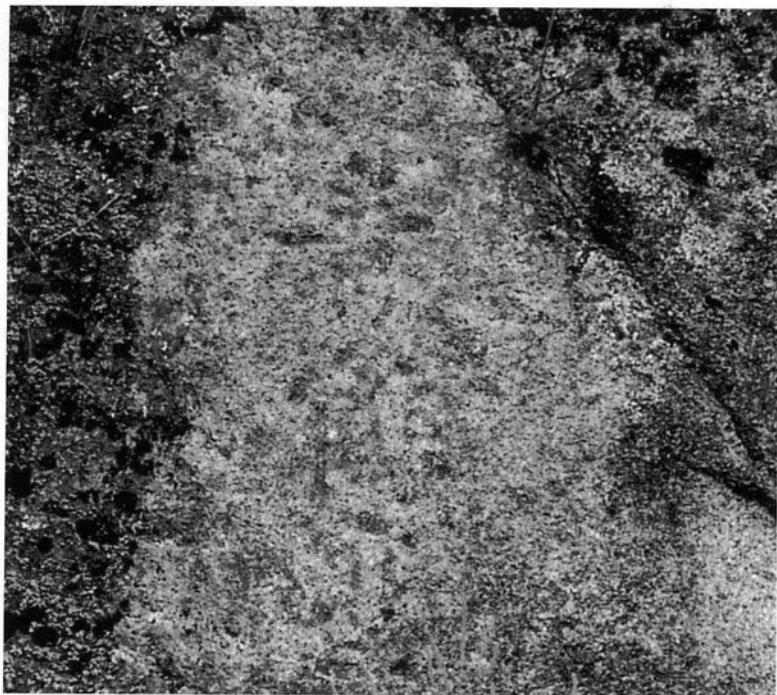
* 글씨크기: 18×20cm

* 제작년대: 1588 (선조21)

欄 障

<자료1:5>는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어 미확인된 자료이나, 글씨체나 제작연대는 다른 자료와 차이가 없다.

〈자료1:6〉 청학대(靑鶴臺)



靑
鶴
臺

* 글씨크기: 18×20cm

* 제작연대: 1588년

<자료1;6> 청학대는 앞에서 소개한 산금대·수경대·백학대와 함께 창옥병에 있었던 누대였다. <이양정기>에는 “소(沼)를 굽어보며 대(臺)를 이룬 것이 넷인데, 하나는 백학이요, 다른 하나는 청학이다. 백학이 청학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실인 듯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청학이 옥병암에 가끔 나타나 이 누대 근처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사암이 이 누대의 이름을 「청학」이라고 한 것은 단지 청학이 이 곳에 날라 온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사암집』에 <청학>이라는 제목의 시가 전하는데, 이 누대의 당시 정황을 가늠케 한다.

붉은 부리 푸른 털에 한쌍의 자주색 다리로
 훨훨 날아와 옥병암 서쪽에서 온다.
 온세상이 까막새라 부른들 무슨 상관 있겠느냐
 닭 떼와 함께 더러운 진흙을 쪼지 않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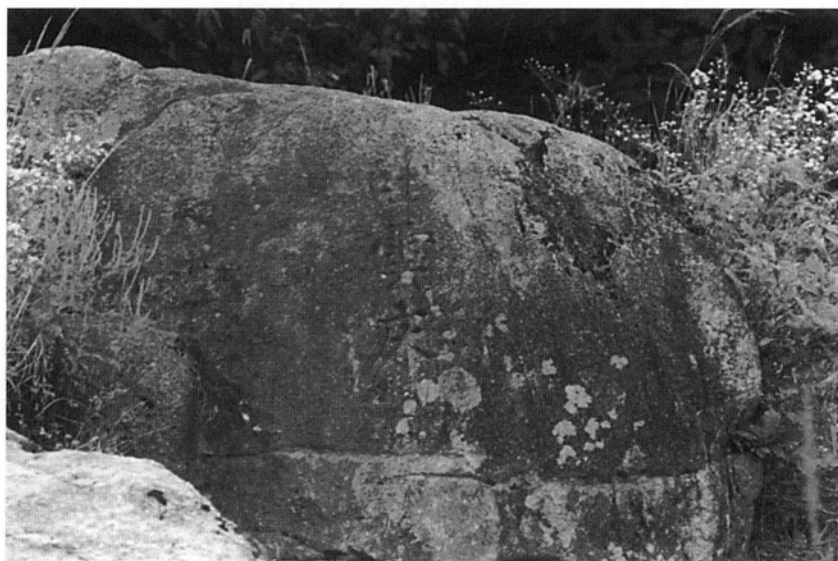
丹硃青毛雙紫脚
 翩翩來叫玉屏西
 何嫌舉世呼黔鳥
 不與鷄群啄汝泥³¹⁾

이 시의 소재가 된 청학은 속명으로 검조(黔鳥), 즉 까막새라고 한다. 내용으로 보아 사암 자신의 처지를 비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간혹들에 의하여 탄핵을 받았을 때 결백함을 은근히 청학에 비의(比擬)한 것이다. 군계(群鷄)는 바로 간혹들이다. 그 들과 더불어 더러운 진흙을 쪼지 않는데, 남들이 자신을 까막새라 부른들 무슨 상관있겠느냐고 토로하

31) 『思菴集』 2;16b.

였다. 누대의 이름을 굳이 「청학」이라고 한 것은 그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료1:7〉 토운상(吐雲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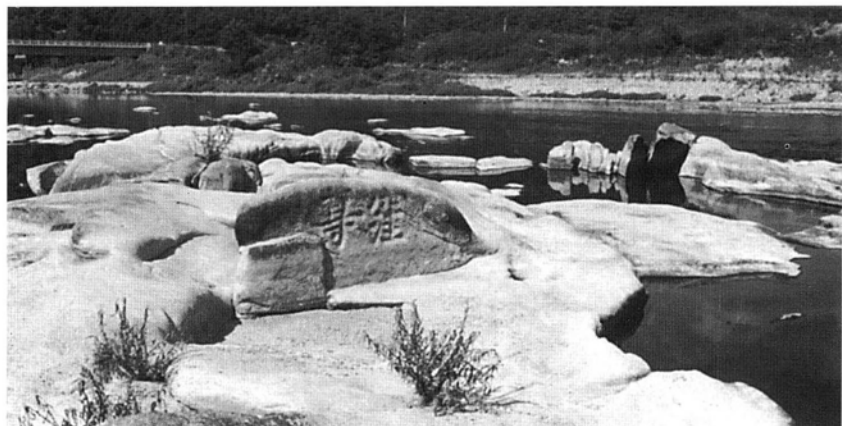
吐
雲
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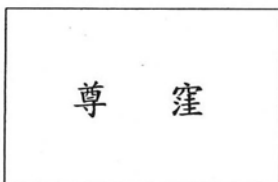
* 글씨크기: 18×20cm

* 제작연대: 1588년

<자료1;7>도 앞의 다른 자료와 같이 사암이 이름짓고, 한석봉이 썼으며, 신이라는 석공이 일시에 새긴 것이다. 사암의 시작품 가운데 「토운상」의 이름이 자주 나타난다. 말 뜻 그대로 “구름을 삼켰다 토했다”하는 곳이다. <이양정기>에는 “중간에 석상이 있는데 토운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청학대 밑 물가에 근접해 있는데, 물안개가 자욱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도 말끔히 걷히면 누대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바위이다. 바닥면이 반석같아 독서하거나 술자리로 제격이다.

〈자료1:8〉 와준(窪尊)





* 글씨크기: 45×45cm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이 암각문은 암벽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물가에 있는 암반 중 돌출한 부분에 새긴 것이다. 글자가 새겨진 뒷부분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마치 술동이 모양이다. <이양정기>에는 “바위의 뿌리가 물 속에 울퉁불퉁하고 한 말이나 들어가는 파인 곳이 있어 그것을 와준이라고 한다.”³²⁾고 하였다. 박순의 <제석와준(題石窪尊)>이라는 시가 있어 이 자료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수면에 울퉁불퉁 솟아있는 푸른 돌등에
한 구멍이 어찌나 다져졌는지 절로 둥그렇게 되었네
맛있는 술 담아내어도 쏟아지지 않으며
술 취한 후에 산늪은이는 또 베고서 잔다.

水面盤陀蒼石背
一窪何鍊自成圓
堪涵綠蟻無傾覆
醉後山翁又枕眠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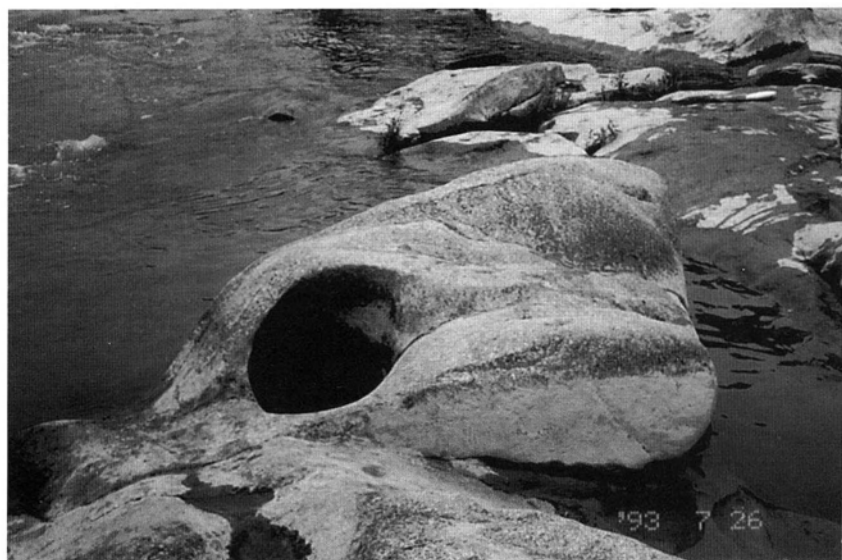
32) “巖足陂陀於水心 有窪容斗 曰窪尊”(朴淳 撰, <二養亭記>).

33) 『思菴集』 2:3b.



▲ 窪尊(탁본)

▼ 窪尊(後面)



위의 시에 따르면 「와준」이라는 이 자연적인 돌술항아리에 술을 부어 놓고 마음껏 취하고는 그결에 돌을 베고 잠을 잡다는 것이다. 양사언에게 준 <증양해성(贈楊海星)>이라는 시 가운데도 “봄이 오면 다시 찾아 주겠는가. 와준에 술 가득하고 산엔 꽃이 가득하리니(春來肯許重相訪 酒滿窪樽花滿山)”³⁴⁾라는 귀절이 있어 사암이 방문객을 맞아 와준에서 취흥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훨씬 뒤의 문인인 김창협(金昌協)의 <창옥병> 싯구 가운데도 와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 주목을 끈다.³⁵⁾

우두연 아래에는 상공의 마을이 있는데
 소나무 강언덕에 배를 매니 바로 묘문이라
 푸른 이끼끼고 침식된 글씨들 옛벽에 남았고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
 정신은 측상에 전하나 종신은 아득하여라
 창옥병 민산처럼 솟은 곳에 은사가 계셨었네.
 시대는 멀어도 마음 기약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윽한 거처를 한 시내의 수원과 함께 하였음에라

牛頭淵下相公村
 松岸維舟是廟門
 蒼蘚蝕題餘古壁
 綠波如酒漲窪樽
 神傳蜀相宗臣迥

34) 『思菴集』 2:11a.

35) 김창협(1651-1708)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仲和, 호는 農巖·三洲, 본관은 안동이다. 영의정 金壽恒의 둘째 아들이다. 金昌集·金昌翁과 함께 3대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부친이 진도에서 사사되자 벼슬을 버리고 영평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문집으로 『農巖集』이 있다. 시호는 文簡이다. 그의 문집에 창옥병에 관련한 자료가 많아 본고에 도움이 되는 바가 많다.

屏聳閩山大隱尊
曠世心期餘不隔
幽棲況共一溪源³⁶⁾

위의 시 가운데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라는 시구에
서 시사하듯이 와준은 옛날 시인묵객들의 애호를 받던 명소였다. 김상정
(金相定)은 <옥병서원>이라는 시에서 사암의 학덕을 칭송하면서 “뚜렷
이 알겠거니와 천년 후에도 소나무와 달은 와준을 비칠 것이다.”³⁷⁾고 하
였다. 지금도 그 구멍을 보면 꼭 술항아리를 보는 듯하다.

〈자료1:9〉 청령담(淸泠潭)

이 암각문은 이곳의 물이름을 명명하고 기록해둔 것으로 추정된다.
「청령」은 물이 매우 맑아서 투명함을 느낄 정도의 모양을 형용한 말이
다. 사암은 <이양정기>에서 청령담의 경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 동방에서는 영평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나, 그중에서도 청령담
이 더욱 유명하다. 그 수원은 백운산에서 시발하였다. 중현산 동쪽에서
흘러나온 지류는 소에 이르러 다시 벼랑을 이루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
는 바닥에는 모두 반석으로 깔려 있고, 반석 중에서도 높은 것은 솟아
올라 혹은 거북이 모양을 하고, 혹은 용인양 꿈틀거리는 듯하다.」³⁸⁾

36) 『農巖集』 6:25.

37) “懸知千載下 松月照窪樽”(〈玉屏書院〉『思菴集』附錄)

38) “吾東方山水 此縣最名 由縣而言 淸泠潭 其尤也 卽白雲溪之所渚 而源發白雲山也

사암이 양사언에게 지어준 <증양해성>이라는 시 가운데 이곳의 경치를 묘사한 것이 있어 관심을 끈다.

청령담 밝은 달에 오봉의 노을
아름다운 경치 끝없는 것 본래 한 집이라
뉘라서 이 즐거움 함께 할지 모르지만
와서 동료되어 복숭아꽃 구경하려는지.

清冷明月五峯霞
風景無邊自一家
未識誰能同此樂
肯來相伴看源花³⁹⁾

김창협이 『농암집』에 <청령뢰신정상량문(淸冷瀨新亭上樑文)>⁴⁰⁾이 전하는데, 바로 이 곳에 정자를 새로 세워 시인 묵객들이 소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암은 청령뢰 위에 정자를 짓고 난 뒤의 감흥을 <청령뢰신루서흥(淸冷瀨新樓書興)>⁴¹⁾에 남기기도 하였다. <청령뢰첩인자(淸冷瀨疊人字)>⁴²⁾라는 작품도 청령뢰에서의 취흥을 그린 것이다.

鍾賢東支 至潭作崖 故水底 皆布全石 高者露出 詭怪錯陳 有若龜龍曝日 島嶼浮溟
崖之嵒巖”(朴淳 撰, <二養亭記>).

39) 『思菴集』 2:11a.

40) cf., 『農巖集』 26:26a-28b.

41) cf., 『農巖集』 5:8.

42) cf., 『農巖集』 5:4.

44 포천의 암각문



清
泠
潭

* 글씨크기: 40×40cm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자료1:10〉 이양정(二養亭)

<자료1:10>은 가장 늦게 발굴된 자료이지만, 사암의 <이양정기>가 있어서 당대의 형상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이양정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적기한다.

「창옥병에서는 언제나 봄 여름 할 것 없이 뼈꾸기가 찾아와서 우는데 산이 비어 소리가 먼곳까지 울려퍼져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한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이천(伊川)의 ‘양덕(養德)’과 ‘양체(養體)’를 뜻한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을 대하고 있고, 그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⁴³⁾

위의 기문에서 시사하듯이 이양정은 정의천의 ‘양덕’과 ‘양체’를 본따 이름붙인 정자이다.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창옥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암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정자가 아닌가 한다. 현재 정자는 소실되었고, 암벽에 「이양정」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다. 앞에서 살핀 창옥병의 암각문은 이 정자를 지은 직후 제작된 것이다.

43) “又就潭嶠最峻處 規爲草亭 曰二養 取伊川養德養體之義也 觀其左 當大壁 右聯四臺 皆負崇山 面勢澄泓 讚巒叢峭 拱揖內嚮 石骨瓊田 倒燭縈迴 吞吐乎煙嵐 掩靄乎林垆 舒慘異候 萬變迭形 鬪奇矜秀 各不相讓 咸與收精會神 俎豆於枕石之間 爲吾所蓄 而日與之娛 棲遲嘯詠”(朴淳 撰, <二養亭記>).



二
養
亭

* 글씨크기: 40×40cm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옥병동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 옥병동에 소재한 암각문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우선, 이 암각문에 관련한 사실이 문헌자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구전에 근거하여 전해오는 다른 암각문과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경승지를 유람하다가 즉흥적으로 각자한 자료와도 구별된다. 하나의 암각문이 각자된 것이 아니라, 무려 11점의 암각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시된다. 우리나라 서예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암각문 자료는 옥병동 마을에 거주하며, 바위에 일일이 이름붙인 사암 박순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암벽 위의 옥병서원은 바로 그를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의 명필가 한석봉이다. 이것을 바위에 새긴 이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이 암각문을 제작한 시기는 만력 16년(1588년, 선조21)으로,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나 되는 자료인 셈이다.

이들 암각문 중에서도 <자료1>은 선조가 박순에게 하교한 윤음을 각자한 것이다. 김창협에 의하면 향리의 사람들이 이 암각문을 암송하고

전하여 신조로 삼아 살아갔다고 한다. 그만큼 이 암각문은 포천 군민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가 기대된다. <자료3>은 1700년경에 예서체의 대가로 알려진 김수증의 글씨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김수증이 쓴 비문은 도처에 산재해 있으나, 이같은 암각문은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이 암각문은 금석문 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조선 중기의 대표적 관료 문인인 박순의 전기적 사실과 옥병서원에 관련한 주변의 사실을 실증해주는 사료로서 한국학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포천군의 영평팔경 중 하나인 창옥병의 유래와 유적을 증빙하는 사료로, 향토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2

금수정 암각문

조사경위

필자는 1993년 7월 이후 4차례에 걸쳐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에 소재한 옥병동 암각문을 조사한 바 있다. 이때 조사한 자료는 지난 10월에 향토사연구전국학술대회(제7회)에서 학계에 소개하였다. 금수정 암각문 자료도 사실 당시에 제보 받았던 것이다. 지역민의 제보에 의하면 봉래 양사언 선생의 필적임이 분명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당시에는 문헌 고증에 난점이 있어서 미루어 왔었다.

금수정은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에 소재하는 영평팔경의 하나인 명승지이다. 이 정자는 조선전기의 문인이요, 서예가로 유명한 양사언 선생이 즐겨 소요하던 곳이다. 이곳 주변에는 양사언 선생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경도(瓊島)」, 「금대(琴臺)」라는 글씨는 지역민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고증하거나, 학계에 소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는 1994년 5월 초에 최종규 포천문화원장의 위촉을 받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나름대로 문헌을 찾고, 양사언 선생의 후손들을 종종 만나 실증적인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여기 소개하는 자료는 1994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남대학술조사단을 이끌고 금수정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금수정 암각문 현장조사시에 동반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최종규 님, 양재창 님, 이유형 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 금수정 전경

금수정 암각문 주변의 상황

1) 금수정을 즐겨 소요한 양사언 선생

금수정(金水亭)은 예로부터 영평팔경(永平八景)으로 불리는 명소중 하나이다. 따라서 영평의 문사들은 물론, 외지(外地)에서 이 곳을 방문한 많은 시인 문객들도 금수정을 즐겨 찾았다. 이덕형(李德馨)·박순(朴淳)·이의건(李宜建)·김수항(金壽恒)·김창협(金昌協) 등도 자주 찾아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특히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은 이 곳 사람으로 금수정을 비롯한 여러 경승지를 들러 풍류를 일삼았다.

양사언(1517-1584)은 조선 전기의 문인, 서예가로 유명하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완구(完邱)·창해(滄海)·해객(海客)·해성(海星) 등으로 불려졌다. 주부(主簿)를 지낸 희수(希洙)의 아들이다. 형인 사준(士俊), 아우 사기(士奇)와 함께 문명을 떨쳐 중국의 미산삼소(眉山三蘇)에 견주어졌다. 그의 아들 만고(萬古)도 문장과 서예로 이름이 전한다. 명종1년(1546) 문과에 급제하여 대동승(大同丞)을 거쳐 삼척·함흥·평창·강릉·회양·안변·철원 등 8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회양군

수로 있을 때 만폭동의 바위에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이라 새겨진 그의 글씨가 지금도 남아 있다. 안변군수로 있을 때는 선정으로 통정대부의 관계를 받았고, 북변의 병란을 예지하고 마초를 많이 비축하여 위급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릉(智陵)에 일어난 화재의 책임을 지고 해서(海西)로 귀양갔다가 2년 뒤 풀려오는 길에 죽었다. 그는 40년간이나 관지에 있으면서도 청렴하여 전혀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글씨는 해서와 초서에 능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김구(金絀)·한호(韓濩)와 함께 조선전기 4대서가로 일컬어졌다. 특히 큰 글자를 잘 썼다. 한시는 작위성이 없고 자연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시조 작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는 지금도 널리 애송되고 있다.

한편, 그는 남사고(南師古)에게서 역술(易術)을 배워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언하였다고 한다. 문집으로 『봉래집(蓬萊集)』이 있다. 유목으로 <미인별곡(美人別曲)> <서호별곡(西湖別曲)>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 금수정의 건립 및 연혁

금수정은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 임 547번지에 소재한 정자이다. 영평천의 수면에서 약 8m 정도 되는 절벽 위의 평평한 대지에 세워져 있다. 주위에는 창옥병을 비롯하여 여러 경승지가 있다. 이 정자의 처음 명칭은 우두정(牛頭亭)이다. 정자가 위치한 곳의 형상이 소의 머리[牛頭]를

났았기 때문에 명명한 것이다. 이 정자를 예워 싸고 흐르는 물도 우두연(牛頭淵)이라 하였다.

금수정의 건립시기 및 건립자에 관한 사항도 다소 혼란이 제기된다. 우두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단지 여러 문인의 시구에 그 명칭이 보일 뿐이다. 최근 금수정 주변에 세워진 「안동김씨세천비(安東金氏世仟碑)」 음기(陰記)에 금수정에 관련한 기록이 있는데, 대략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척약재(楊若齋) 김구용(金九容)이 이곳을 소요하다가 문득 이곳을 소머리(牛頭)의 형상이라 하였고, 그의 차자(次子)인 명리(明理)가 탄곡(炭谷)에 은퇴해 있을 때 이곳에 들러 정자를 수축(堅築)하고 「우두정(牛頭亭)」이라 명명(命名)하였다. 그의 장자(長子) 맹헌(孟獻)은 벼슬이 예문관직제학에 이르렀는데, 창수(蒼水)에 은퇴하였다. 직제학공의 손자인 윤복(胤福)은 양사언(楊士彦)과 더불어 우두정(牛頭亭)에서 “오금(吾金)의 금자(金字)와 창수(蒼水)의 수자(水字)를 따서 「금수정(金水亭)」이라 개칭현판(改稱懸板)하고 헌함(軒檻)에 「오락풍월(娛樂風月)」이라 현액하였다. 지금은 정자초벽애(亭子楚壁崖)의 「금수정(金水亭)」, 「동천석문(洞天石門)」의 해서(楷書)와 천중암(川中岩)에 새겨진 초서(草書) 「부도(浮島)」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광해조에 벼슬한 금사공(金沙公) 김확(金燭)이 귀향하여 소일할 때 금수정을 단청보수하고, 부대 건축물을 개축하였다.”

위의 비문에 의하면, 우두정을 세운 이는 김명리(金明理)이며, 연대는 조선 세종조이다. 양사언과 함께 금수정(金水亭)이라 개칭한 이는 김윤복(金胤福)이다. 김확(金燭)이 개수하였다.

우두정 건립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록에서 고증할 바가 없어 위의 사

실을 수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수정의 경우는 의심되는 점이 없지 않다. 다음 고문헌자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金水亭;在郡西七里 古府使金獲卜築也” <永平郡邑誌,樓亭>
- ② “金水亭;在縣西十五里 亭壓白雲溪石崖上 本朝楊士彥別築 士彥每月夜彈琴 亭上作詩 刻崖石” <東國輿地誌, 樓亭>
- ③ 「贈琴翁」-琴翁 錦水亭主人也 刻此詩於尊巖 (『贈琴翁』, 『蓬萊詩集』 1:28b)

앞의 글에서 분명하게 “금수정은 부사 김확이 복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뒤의 “본조 양사언별축(本朝 楊士彥別築)”이라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확(1572-1653)의 생몰년대를 보더라도 양사언의 건립 사실이 우선 앞선다. 그리고 성해응이 『동국명산기』에서 “봉래의 별업인데 김씨에게 돌아갔다(故蓬萊別業 歸于金氏)”⁴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양사언이 세상을 마친 후 안동 김씨의 소유가 되어 전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제공(蔡齊恭)의 「금수정중수기(金水亭重修記)」에는 “금수정이 김씨의 소유로 된 것이 여러 백년이 되었다. 김씨들은 여기에 묘를 쓰고, 여기를 전원으로 삼곤한다.”⁴⁵⁾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양사언의 소유였던 금수정이 김씨의 소유로 되었음이 분명해진다. 금수정의 표기가 「錦水亭」에서 「金水亭」으로 개칭된 것도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44) 成海應, 『東國名山記』, 自然經室藏.

45) “亭爲金氏有 且樓百年矣 金氏丘墓於斯 田園於斯”(蔡齊恭, 「金水亭重修記」, 『樊巖集』).

여하튼 금수정은 양사언의 사후부터는 안동 김씨가 대대로 보존해 왔다. 다음 「금수정중수기(金水亭重修記)」에서 그같은 사실이 다시 입증된다.

“지금 김씨는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있어서 기울어지는 것을 붙들어 지탱하고 위태한 것을 안정시킨 공이 우뚝하게 서 있는 물건에까지 미쳤다. 정자도 오히려 이러하니 하물며 정자보다 더 큰일이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정자가 주인을 만난 것을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김씨들이 오직 조상의 자취를 이어서 이 정자를 황폐하게 하지 않는 것을 축하한다.”⁴⁶⁾

금수정은 안동 김씨 소유로 전해오면서 몇차례 중수되었다. 채팽윤(蔡彭胤)의 『희암집(希巖集)』 권25에 <금수정중건상량문(金水亭重建上樑文)>이 있어 그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중건한 건물을 후손 김택인이 정조때 다시 중수하였다. 채제공의 「금수정중수기(金水亭重修記)」에 “금년 봄에 김택인이 나에게 정자를 개수한 전말을 이야기 해주며 기문을 청하였다(今年春 金君宅仁 爲余言改修亭顛末 要余文記之)”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문을 보면, 중수 당시에도 이민구(李敏求)의 <금수정시문(金水亭詩文)>과 채팽윤의 <금수정중건상량문>이 정자 안에 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수정은 6.25동란시 소실되어 장초석만 남았다. 1989년 포천군비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복원하였다. 1990년에 다시 5백만원을 들여 난간 및

46) “今金氏世有其人 至傾尊危之功 至及於一區巍然之物 亭猶如此 況大於亭者乎 余於是 一以賀亭之遭遇主人 一以賀金氏之惟祖武是繩 以能不廢斯亭”(蔡齊恭, 「金水亭重修記」, 『樊巖集』).

진입로 등을 정비하였다.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2칸이며, 면적은 17m이다. 처마 높이 4m, 최고 높이 7m로 기단은 화강암 외벌대식 초석으로 되어 있다. 목조 형태는 초익공 3량으로 덧서까래 겹처마 팔작지붕 형식이다. 제영(題詠)으로는 조건행(趙健行)의 「금수정복원준공시(金水亭復元竣工詩)」가 걸려 있다.

3) 금수정의 현액명에 대한 의문점

금수정은 고문헌에 「錦水亭」「金水亭」으로 기록되어 있어 다소 혼란을 야기한다. 단순히 이해될 문제도 아니다. 어쩌면 금수정의 유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일 수 있다. 우선 이 정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양사언의 문집 『봉래집』에는 「錦水亭」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錦水亭>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가 하면⁴⁷⁾, 「증금옹(贈琴翁)」이라는 시에는 “금옹은 금수정 주인이다. (琴翁 錦水亭主人也)”⁴⁸⁾이라는 글을 부기하였다. 그런데, 이후의 문헌에는 모두 「金水亭」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박순의 <차기연사운(次寄然師韻)>이라는 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금수정의 유래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47) “十年塵土鬢如絲 一笑歡娛問幾時 晚向江湖訪漁父 白鷗心事少人知”(「錦水亭」, 『蓬萊詩集』 1:19b).

48) 『蓬萊詩集』 1:28b.

「천연사는 영평 보장산에 살았다. 내가 영평에 자리잡아 살려고 한다고 하니, 천연사가 일찌기 우두연의 좋은 경치를 말하면서, 그 물가에 양씨의 정자가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사라고 권했다. 천연사가 막 거처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⁴⁹⁾

위의 기록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박순이 영평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1586년 8월의 일이다.⁵⁰⁾ 양사언이 세상을 마친 해가 1584년이고 보면, 바로 2년 뒤의 일이다. 여기서 양사언이 죽은 뒤 금수정은 주인이 없이 방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안 천연사(天然師)가 박순에게 그것을 사라고 권했던 것이다.⁵¹⁾

동주(東洲) 이민구(李敏求)의 <금수정시서(金水亭詩序)>에서는 「錦水亭」이 아닌 「金水亭」으로 기술하고 있다.⁵²⁾ 이민구(1589-1670)는 이수광의 아들이다. 그의 형인 이성구(李聖求)는 1616년(광해군8)에 영평현 판관에 부임하여 반월성을 개축하고, 화산서원을 세우는 등 여러 공적을 남겼다. 금수정이 「錦水亭」이 아닌 「金水亭」으로 개칭된 것은 이 기간 동안이 아닌가 추정된다. 대략 박순이 영평에 거처를 옮긴 해인 1586년에서 이민구가 세상을 마친 해인 1670년 사이에 개칭되었을 것이다.

최근 금수정 주변에 세워진 안동김씨세천비(安東金氏世仟碑) 음기에는 “오금(吾金)의 금자(金字)와 창수(蒼水)의 수자(水字)를 따서 금수(金

49) “師住永平寶藏山 我欲卜居永平 師嘗說牛頭淵勝概 且上有楊氏亭 勸我買之 師方欲移錫 故云”(〈次寄然師韻〉, 『思菴集』 3;18b).

50) “余於丙戌仲秋 承恩 浴椒井于永平地 覽其溪山而心悅之 遂稅駕而居焉”(〈二養亭記〉, 『思菴集』 4;18a).

51) 천연사는 보장산에 거주하던 스님인데, 字를 無爲라 하였다. 양사언과 교유하였음을 『蓬萊集』의 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2) “白鷺洲在洞陰縣 南十里而遠 其水北流 抱縣治而下轉長林 一牛鳴地 稍西迤水益大 翠屏開張 爲浮雲壁……水匯而爲潭 有亭翼然 其上爲金水亭”.

水)라 개칭하였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와는 다른 견해이다. 양사언의 기록에서 보이는 「금수정」과 관련을 갖고 본다면, 오히려 이덕형(李德馨)의 다음 시구에서 볼 수 있는 「金水銀沙」에서 「金水」라는 명칭을 따왔을 것이다.

“古相公李德馨詩曰 金水銀沙一樣平 峽雲江雨白鷗明 尋眞偶入桃源路
莫遣漁舟出洞行”⁵³⁾

이는 ‘비단 물결’이라는 뜻의 명칭인 「錦水」와도 상통한다. 게다가 김씨 문중의 「金」자와도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이렇게 개칭하였을 개연성이 짙다.

53) <永平郡邑誌, 樓亭> 『輿地圖書』.

금수정 암각문의 내용

금수정 지역의 암각문은 단순히 경승지에서 일시적 취흥에 겨워 각자 한 자료와 구별된다. 이 지역의 자료는 필자가 1차 조사시 발견한 옥병동의 암각문과 함께 이미 여러 선현들로부터 격찬되었으며, 서체가 조선조 4대 명필가에 속하는 양사언·한석봉의 글씨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양사언은 <서산석 차왕반산(書山石 次王半山)>⁵⁴⁾이라는 시제나, <동촌십영(東村十詠)>의 다음 싯구에서 시사하듯이 즐겨 암각문을 남겼다.

붉은 단풍 푸른 나무가지에 들고
천향은 계수나무 열매에 떨어지는데
눈 앞에 사람도 보이지 않으며
부질없이 돌 위에 글씨만 남기네.

丹染青楓枝

54) 『蓬萊集』 1:7a.

天香落桂子
 不見眼中人
 空餘石上字⁵⁵⁾

특히 그가 즐겨 소요하던 금수정에는 암각문 자료가 적지 않다. 이민구는 <금수정시서(金水亭詩序)>에서 양사언과 박순의 문채 풍류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였다.⁵⁶⁾ 채제공은 일찌기 이곳을 유람하면서 두 명필가의 암각문을 보고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내 일찌기 도백으로서 순시의 길을 우회하여 이곳에 들른 일이 있다. 정자에 올라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물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기도 하였다. 양사언·한호의 필적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벽 위에 걸려 있는 이민구의 시문과 채팽륜의 상량문을 읽기도 하였다.”⁵⁷⁾

또한,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백운계기(白雲溪記)>에 “시냇가의 반석 위에는 봉래·석봉의 글씨를 새긴 것이 있는데, 감상할 만하다. 못 위에는 김씨의 옛집이 있으며, 금수정이라 한다.”⁵⁸⁾이라는 귀절이 있는데, 이는 금수정 암각문의 가치를 충분히 시사한다.

이밖에도 금수정 암각문 자료에 대한 언급은 여러 고문헌에서 살필 수 있다.

55) 「東村十詠」-盤石賞秋(『蓬萊集』 1;2a).

56) “蓋蓬萊思菴 邈爾先輩 文彩風流 彷彿影響而已”(〈金水亭詩序〉).

57) “余嘗以道伯 迂巡節以入 登亭而觴 臨水而席 拊楊士彥韓景洪筆蹟 讀壁間李東洲詩文 及希巖先生上樸文”(蔡齊恭, 「金水亭重修記」, 『樊巖集』).

58) “溪間盤石 上有蓬萊石峯石刻書 可翫 潭上有金氏舊業 曰金水亭”(『永平邑誌』, 「樓亭題詠」).

① 古相公李德馨刻尊巖詩曰 金水銀沙一樣平 峽雲江雨白鷗明 尋眞誤入桃源路 莫遣漁舟出洞行 古楊蓬萊士彥筆 <永平邑誌, 樓亭題詠>

② 朴思菴次廻瀾石韻曰 細風吹碧瀨 斜照媚蒼屏 仙駕淹清景 幽棲是素情 澗芳春尚照 林靄晚來輕 對此應多感 湘潭水已生 楊蓬萊士彥石刻 <永平邑誌, 樓亭題詠>

③ 金水亭;由永平邑治 而西南望林麓秀麗 隱隱有異者 金水亭也 從野中行 挾川 而往入 亭北石門 門刻洞天石門 石峯筆也 ④ 臨川大石 刻廻瀾石 天使許國筆也 ⑤ 亭扁金水亭 蓬萊筆也 亭傍古檜老松挺立 既登亭而望川 勢彎回而至 圓如弓滿 既抵亭北而復紆過亭下 亭下峭壁 數十丈 色皎潔 綠壁細路 甚危然 亦得通 是謂白雲溪 野勢平曠 綠蕪無際 縣門外林木蔥青窈窕 故蓬萊別業 歸于金氏 世傳之 白雲樓 其室也 前對小姑山 妍妙如畫 川光益滢 壁匯于山下 復漫流而去 ⑥ 白沙平浦 水中奇巖盤陀 可坐曰 瓊島 ⑦ 沙上白石 其形窪 稱蓮花巖傍 刻蓬萊詩文 ⑧ 又刻尊巖 亦竝蓬萊筆也 蓬萊筆 飄飄有仙氣 於是呼稱也 <成海應, 『東國名山記』, 自然經室藏>

⑨ 「贈琴翁」-琴翁 錦水亭主人也 刻此詩於尊巖 (『贈琴翁』, 『蓬萊詩集』 1:28b)

⑩ “白鷺洲在洞陰縣 南十里而遠 其水北流 抱縣治而下轉長林 一牛鳴地 稍西迤水益大 翠屏開張 爲浮雲壁 壁有韓石峯書「壺中日月 醉裡乾坤」八大字 水匯而爲潭 有亭翼然 其上爲金水亭”<李敏求, 『金水亭詩序』 『東洲集』 2:45a)

금수정 지역 암각문자료 분포 (1)



- ① 「洞天石門」(石峯筆) ② 「廻瀾石」(許國筆) ③ 「金水亭」(巖刻) ④ 「金水亭」(亭扁; 蓬萊筆)
 ⑤ 「武陵」 ⑥ 고문헌에 나타난 본래의 금수정 출입로 ⑦ 최근에 설치한 집수처리 시설물

금수정 지역 암각문자료 분포 (2)



⑤ 「武陵」 ⑥ 蓬花巖-「贈琴翁」(蓬萊筆) ⑦ 金水亭 ⑧ 白雲樓가 있었던 곳

* ⑦ 「瓊島」(蓬萊筆) ⑧ 「尊巖」(蓬萊筆)은 ⑥의 맞은 편 바위에 있다. 이 사진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음.

〈자료2:1〉 동천석문(洞天石門)



門石川洞

* 글씨크기: 33×34cm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2;1>은 한석봉의 글씨이다. 글씨 하나의 크기는 33cm×34 cm이다. 현재 「洞天石」 세 자만 표출되어 있고, 「門」자는 땅 속에 묻혀 확인할 수 없다. 이 자료의 제작연대는 옥병동의 암각문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588년(선조21)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들 가운데를 따라 좁은 내를 끼고 들어가면 정자 북쪽의 석문이 있다. 문에 「洞天石門」이라고 새겼는데 한석봉의 글씨이다.”⁵⁹⁾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옛날에는 금수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석문 쪽의 길을 이용했던 것 같다. 실제 현재의 도로편보다도 “들 가운데를 지나 내를 끼고 석문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이 지름길이다.

「동천석문(洞天石門)」의 「동천(洞天)」은 “하늘에 이르는” 또는 “신선이 사는 별천지(別天地)”를 뜻한다. 여기서는 “신선(神仙)이 사는 별천지에 이르는, 돌로 만든 문”을 뜻한다.

<자료2;2> 회란석(廻瀾石)

<자료2;2>는 중국 황제의 사신으로 온 허국(許國)의 친필이다. <자료2;1>이 각자된 큰 바위 뒷면 우측에 있다. 글씨 하나의 크기는 40×45 cm이다. 현재 「瀾石」 두 자만 남아 있고, 「廻」자는 떨어져 나갔다. 허국이 어떠한 이유로 언제 이곳에 들렀는지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성해응의 다음 글에서 이 자료가 허국의 친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59) “從野中行挾川 而往入 亭北石門 門刻洞天石門 石峯筆也” 成海應, 『東國名山記』, 自然經室藏.

“넷가에 있는 큰 돌에 회란석이라고 새겼는데, 중국의 사신 허국의 필적이다.(臨川大石 刻廻瀾石 天使許國筆也)”⁶⁰⁾



石瀾(廻)

* 글씨크기: 40×45cm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60) 成海應, 『東國名山記』, 自然經室藏.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멀리서 흘러온 물굽이가 정자를 끼고 돌아나간다”고 이곳의 형상을 기술하였다. 「회란석」이라는 명칭도 이같은 형상에 연유한 것이다.

“금수정은 서쪽 십리에 있다. 들가운데 우뚝 솟은 한 두둑이 있는데, 이 두둑의 남쪽에 석벽이 둘러 있다. 높이가 5, 6길이나 되며, 정자는 절벽 위에 있다. 먼데서 물이 굽이쳐 와서 정자를 에돌아 가는데 수면이 드넓어 망망하다”⁶¹⁾

다음에서 보듯이 『영평읍지』, 누정제영(樓亭題詠)조에 박순의 <차회란석운(次廻瀾石韻)>이라는 시가 전한다.

가는 바람 푸른 여울에 불고
 빗긴 햇살 곱게 창옥병에 비치는데
 신선의 수레 맑은 경치 가리네
 그윽한 데 깃드는 것 본래의 정리일세
 냇가에 봄기운 아직 비치고 있고
 숲속의 안개 늦으막에 가벼운데
 이를 대하여 느낌이 많아서인지
 맑은 못에 물이 일렁이누나.

細風吹碧瀨
 斜照媚蒼屏
 仙駕淹清景
 幽棲是素情

61) “金水亭; 西十里 野中特起 一墩 墩之南 環作石壁 高可五六丈 亭在壁上 遠水瀾廻 環亭而去 水面曠野茫茫” <大東地誌, 樓亭>.

澗芳春尙照
林靄晚來輕
對此應多感
湘潭水已生⁶²⁾

여기서 시사하는 바도 크다. 시제가 회란석에 새겨진 시의 운자를 차운하여 지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란석 어딘가에 박순이 차운해 지은 시의 원운(元韻)이 있었음직 하다. 현재 이 자료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자료2:3〉 금수정(金水亭)



62) <次廻瀾石韻>, 『永平邑誌』, 樓亭題詠.

<자료2;3>은 금수정 아래에서 회란석 쪽으로 이어진 절벽 중간에 각자된 자료이다. 「金」자의 크기는 33cm×34cm, 「水」자의 크기는 36cm×31cm, 「亭」자의 크기는 31cm×38cm이다. 이를 흔히 양사언의 필체라고 하는데, 필자는 견해를 달리한다. 성해응이 『동국명산기』에서 “정자의 편액 금수정은 봉래의 필적이다(亭扁金水亭 蓬萊筆也)”라고 밝히고 있듯이, 양사언이 쓴 「金水亭」 세 자는 암각문이 아니고, 정자의 편액이다. 서체에 대해 좀더 고증이 필요하나, 필자는 일단 암각된 「金水亭」 세 자는 한석봉의 글씨로 본다. 허목의 「백운계기(白雲溪記)」에 “시냇가의 반석 위에는 봉래·석봉의 글씨를 새긴 것이 있는데 감상할 만하다.”⁶³⁾라는 기록이 있다. 금수정 지역에는 한석봉의 암각문도 널리 알려졌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복원되어 있는 금수정의 현액에 “양사언의 글씨를 탁본하여 보필하였다.(楊士彦書 拓本補筆)”고 부기하였는데, 암각된 「金水亭」 세 글자를 탁본하여 현재의 현액과 대조해본 결과 다음 자료에서 보듯이 상이하다. 현판의 「金」자의 크기는 26.5cm×31cm, 「水」자의 크기는 33cm×23cm, 「亭」자의 크기는 25.5cm×2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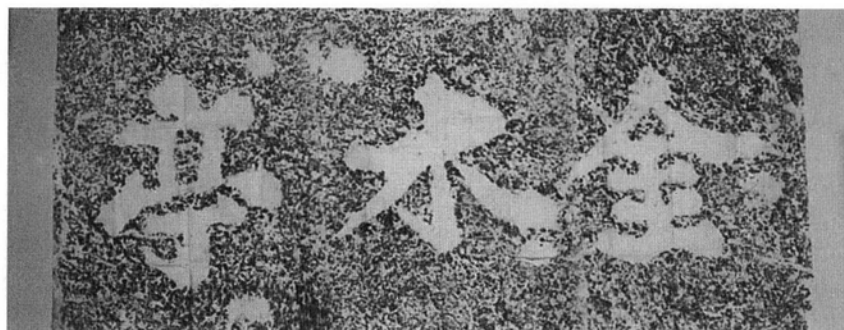
63) 『永平邑誌』, <樓亭題詠>.



* 글씨크기: 90 × 31cm

▲ 금수정 현판의 탁본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 글씨크기: 110×38cm

▲ 금수정 암각문의 탁본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2:4〉 금대(琴臺)



*글씨크기:41×9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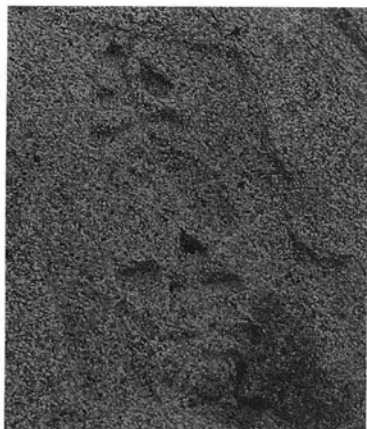
*제작연대:조선 선조대

<자료2:4>는 「안동김씨세천비」 바로 옆 바닥에 새겨져 있다. 「琴」자의 크기는 41cm×44cm, 「臺」자의 크기는 35cm×54cm이다.

포천군청에서 제작한 「금수정안내문」에는 「취대(翠臺)」로 소개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다음 기록에서 보듯이 이곳은 양사언이 대(臺)를 짓고 거문고를 타던 곳이다.

“금수정은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 정자는 백운계곡의 석벽 위에 압도해 있는데 본조의 양사언이 세운 것이다. 사언은 매월 밤에 거문고를 타고, 정자 위에서 시를 지었다.”⁶⁴⁾

〈자료2:5〉 무릉(武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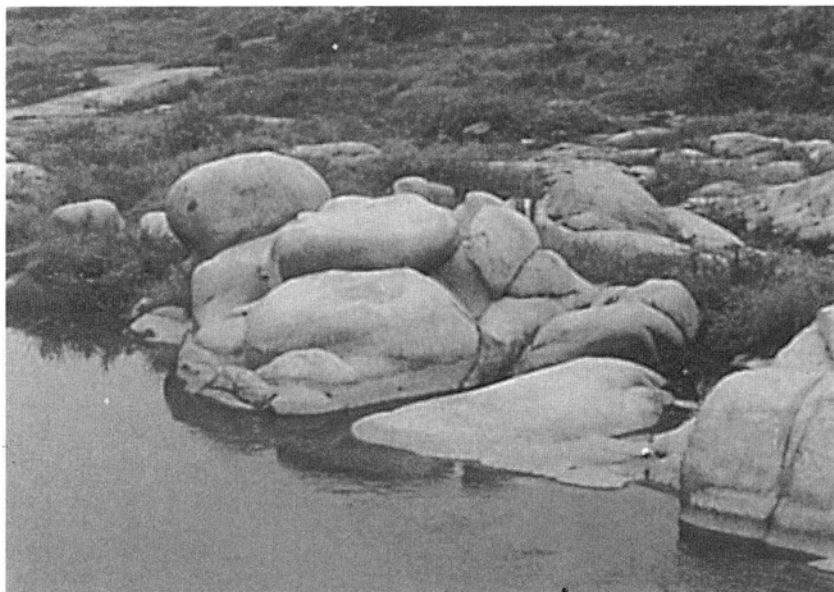
* 글씨크기: 30×45cm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2:5〉는 금수정에서 절벽 사이의 계단으로 내려와서 마주치는, 물가의 바위에 각자된 자료이다. 사방 30cm×45cm의 크기로 반듯하게 파낸 다음, 여기에다 다시 「武陵」 두 자를 음각하였다. 글씨 「武」자의 크기는 16cm×22cm이며, 「陵」자의 크기는 17cm×21cm이다. 다른 자료에 비해 훨씬 뒤에 각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련한 문헌기록도 살필수 없다.

64) “金水亭;在縣西十五里 亭壓白雲溪石崖上 本朝楊士彥別築 士彥每月夜彈琴 亭上作詩” <東國輿地誌, 樓亭>.

〈자료2:6〉 증금옹시(贈琴翁詩)



▲ 연화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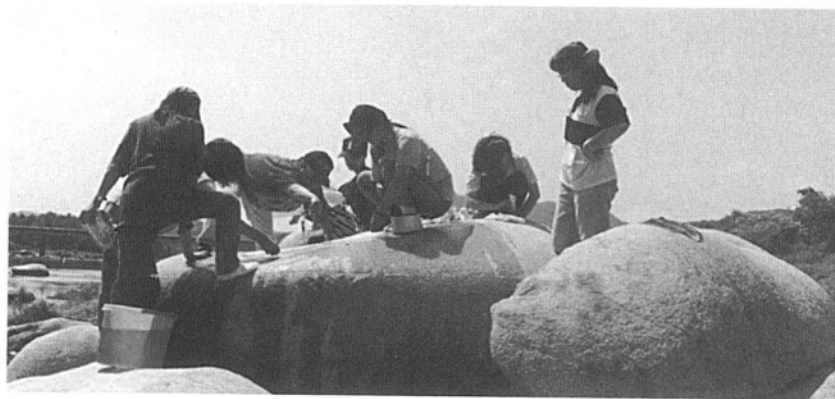
이 자료는 예로부터 여러 문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자료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문헌자료도 풍부하다.

① 「贈琴翁」-琴翁 錦水亭主人也 刻此詩於尊巖

綠綺琴伯牙心 種子是知音 一鼓復一吟 泠泠虛籟起遙岑 江月娟娟江水深”(「贈琴翁」,『蓬萊詩集』1:28b)

② 金水亭;在縣西十五里 亭壓白雲溪石崖上 本朝楊士彥別築 士彥每月夜彈琴 亭上作詩 刻崖石 其詩曰 綠綺琴伯牙心 種子是知音 一鼓復一吟 泠泠虛籟起遙岑 江月娟娟江水深 <東國輿地誌, 樓亭>

③ “自亭西十餘武 有大石峙於水涯 上陷而爲窪尊 受酒可七斗 其傍鐫楊蓬萊詩曰 綠綺琴伯牙心 種子是知音 一鼓復一吟 泠泠虛籟起遙岑 江月娟娟江水深”<李敏求, 「金水亭詩序」『東洲集』2:45b)



▲ 〈자료2:6〉을 탁본하는 모습



江	冷	一	種	綠
月	冷	鼓	子	綺
娟	虛	復	是	琴
娟	籟	一	知	伯
江	起	吟	音	牙
水	遙			心
深	岑			

▲ 증금웅시(탁본)

*글씨크기: 13.5×19cm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2:6>의 전체 규모는 120cm×90cm이며, 글씨 하나의 크기는 13.5cm×19cm이다. 초서체로 쓰여 있다. 금옹(琴翁)이라는 이에게 준 시작품 원본을 그대로 각자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 자료를 번역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녹기금 백아의 마음

한 번 타고 다시 한 번 읊노라니

종자가 바로 지음을 하는구려

허뢰는 선들선들 먼봉우리서 일어나고

강가의 달은 곱디곱고 강물은 깊고깊네

綠綺琴伯牙心

種子是知音

一鼓復一吟

泠泠虛籟起遙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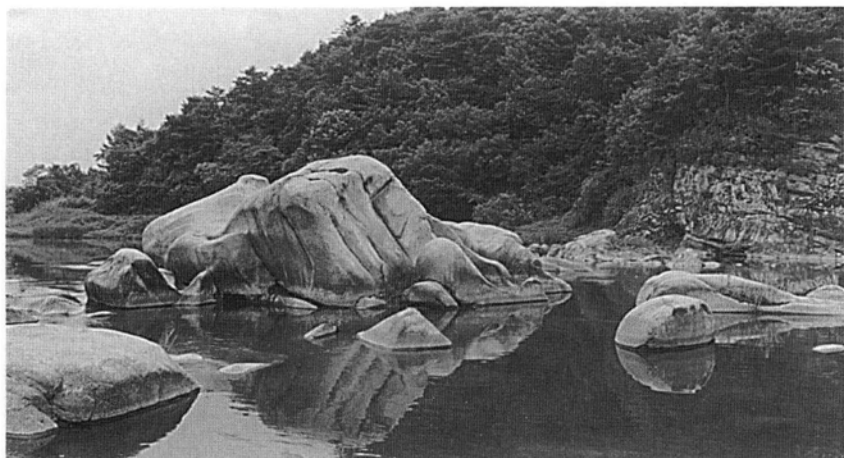
江月娟娟江水深

앞에서 살폈듯이 이 자료는 옛 문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민들도 모르는 정도이다. 연화암 윗 부분에 각자하였기 때문에 멀리 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물에 휩쓸려 심하게 마멸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살필 수 없는 자료이다. 이 자료가 본 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것도 천우신조라 할 수 있다.

〈자료2:7〉 경도(瓊島)



▲ 瓊島(尊嚴) 전경



▲ 瓊島 주변 광경

<자료2;7>은 금수정에서 서남간으로 보이는, 물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에 새겨진 자료이다. 이 자료의 전체 규모는 $86\text{cm} \times 230\text{cm}$ 이며, 글씨 「瓊」자의 크기는 $86\text{cm} \times 120\text{cm}$ 이며, 「島」자의 크기는 $80\text{cm} \times 110\text{cm}$ 이다. 초서체로 쓰여 있다. 본래 양사언은 큰 글씨를 잘 썼던 명필가이나, 이처럼 규모면에서 큰 자료는 매우 희귀하다. 양사언이 금수정에서 소요하며 각자했을 개연성이 짙다.

이 자료는 금수정 암각문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탁본 자료에서 보듯이 서체가 난초(亂草)여서 판독하기 쉽지 않다. 포천 향토사가들은 물론 서예가들도 각기 혼선을 빚고 있다. 「경도(瓊島)」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도(浮島)」로 볼 것인가 문제이다.



◀ 경도 (탁본)

*글씨크기: 86×230cm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다음에서 보듯이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서는 「瓊島」라고 소개하고 있다.⁶⁵⁾

65)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다. 포천 출생인 그는 북학과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각종의 서적을 섭렵하였다. 경사(經史)는 물론, 지리·풍속·서적, 심지어는 금수·곤충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다.

“前對小姑山 妍妙如畫 川光益滢 壁匯于山下 復漫流而去 白沙平浦 水中奇巖盤陀 可坐曰 瓊島 沙上白石 其形窪 稱蓮花巖傍 刻蓬萊詩文 又刻尊巖 亦竝蓬萊筆也”⁶⁶⁾

그가 분명히 「경도」로 소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포천의 지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편이다.⁶⁷⁾ 필자 역시 이 자료를 접하고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보아도 앞의 부수자가 「玉」자임은 분명한데, 뒤의 몸은 「孚」자와 흡사하다. 이를 「瓊」자의 몸인 「璽」자의 초서체로 보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앞의 부수자를 「彳」의 초서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瓊島」가 아닌 「浮島」가 된다. ‘물 가운데 떠 있는 섬’이라는 뜻에서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사실,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경주하면서도 고문헌의 기록을 수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해옹의 기록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양사언의 글씨가 확실하다면, 그의 문집에 한 귀절이라도 소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봉래집』을 섭렵하였다. 천우신조로 이에 관련한 다음 싹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① “山水情懷老更新 如何長作未歸人 碧桃花下青蓮舍 瓊島瑤臺入夢頻”(『鶴城寄友人』, 『蓬萊集』 1:24a)

② “軒鶴舞鳴琴 鸞凰下瓊島 欲去無舟楫 江漢不可造”(『贈別春州奇刺使東岡先生』, 『蓬萊集』 3:8a.)

66) 成海應, 『東國名山記』, 自然經室藏.

67) 필자를 현장에까지 안내해준 李宇衡 씨(포천군 관인면 중일리 거주)는 성해옹의 기록을 그대로 수궁하고 있었다.

①은 <학성기우인(鶴城寄友人)>이라는 시의 전문이다. 내용으로 보아 양사언이 지릉(智陵) 화재(火災) 사건으로 인해 해서(海西)로 유배되던 당시에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대략 1582년(선조15) 무렵으로 추정된다.

②는 <증별춘주기자사동강선생(贈別春州奇刺使東岡先生)>이라는 시의 전체 18구중 13-16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동강선생(東岡先生)은 바로 김우옹(金宇顒)이다. 「백로주(白鷺洲)」의 대자(大字)도 그가 썼다.

위의 자료를 통해 <자료2;7>의 암각문은 「경도」임이 확실시된 셈이다. 박순의 다음 시 가운데, 「瓊田石骨相涵映」에서의 「瓊田」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이다.

“朴淳詩 崖巔鑿架小簷楹 選勝應勞意匠營 喬木擁深孤縣小 亂山中坵一川平 瓊田石骨相涵映 暖翠浮嵐遠滅明 見說主人垂白髮 琴心山水曲猶清”⁶⁸⁾

실제 금수정에서 물가의 바위들을 내려 보면 구슬을 깔아 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경도」는 바위 색깔도 붉은 빛이 돈다. 석양이나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면 더욱 흡사할 듯하다.

68) 『東國輿地誌』, 永平顯 樓亭條.

〈자료2:8〉 준암(尊巖)



▲ 「尊巖」을 탁본하는 모습

尊

巖

- * 글씨크기: 37×94cm
-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2;8>은 <자료2;7>의 측면에 각자된 자료이다. 글씨 「尊」자의 크기는 37cm×54.5cm이며, 「巖」자의 크기는 36cm×38.5cm이다. 경도(瓊島) 중앙에 술동이처럼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이를 ‘술동이 바위’라는 뜻에서 「준암(尊巖)」이라 명명한 것이다. 성해응은 『동국명산기』에서 양사언의 글씨라고 하였다

“모래 위에 흰 돌이 있는데 형체가 술동이와 같다. 연화암이라고 칭하는 바위 곁에 봉래의 시문을 새겨 놓았다. 또 준암이라 새겼는데 역시 봉래의 필적이다.(沙上白石 其形窪 稱蓮花巖傍 刻蓬萊詩文 又刻尊巖 亦竝蓬萊筆也)”

다음 기록에서 시사하듯이 이곳에서 많은 옛 문인들이 취흥을 즐겼던 듯하다. 이민구(李敏求)는 이곳에 술을 부으면, 7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였다.⁶⁹⁾

① “申樂全堂詩曰 峽裏危亭古 登臨延賞心 微茫看遠岫 蒼翠擁長林 石仄牛頭出 湖明壁影沈 秋光撩客興 未覺樹移陰 沙自亭前白 湖從壁底深 苔封林外徑 松作檻邊陰 仙客詩猶在 巖罇酒可斟 平生出塵想 卽此暫開襟” <永平邑誌, 樓亭題詠>

② “自亭西十餘武 有大石峙於水涯 上陷而爲窪尊 受酒可七斗” <李敏求, 『金水亭詩序』 『東洲集』 2;45b>

69) 참고로 창수면 주원4리 옥병동의 물가에도 「窪尊」이 있는데, 박순의 『思菴集』을 보면, 여기에다 술을 부어놓고 취흥을 즐겼다고 한다.

이밖에 이민구는 <금수정팔영(金水亭八詠)> 시 가운데 「준암급주(尊岩汲酒)」라는 제목하에 다음 5언절구를 읊었다

한 평생 부질없는 늙은이가
 혼자서 준암의 술을 길어내는데
 냇물 위의 햇살 동쪽으로 흐르지만
 푸른 술잔은 나를 저버리지 않네

平生漫浪翁
 自汲尊岩酒
 溪水日東流
 清觴不我負⁷⁰⁾

『영평읍지』 누정제영(樓亭題詠)조에는 이덕형(李德馨)의 시를 여기에 다 각자하였다⁷¹⁾고 하였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의 자료는 각 읍지마다 기록되어 있어 널리 알려졌던 것 같으며,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70) 李敏求, 『東洲集』 詩集, 24:13b.

71) “古相公李德馨刻尊巖詩曰 金水銀沙一樣平 峽雲江雨白鷗明 尋眞誤入桃源路 莫遣漁舟出洞行 古楊蓬萊士彥筆” <永平邑誌, 樓亭題詠>.

금수정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

〈附〉 미확인 자료

금수정(金水亭)은 포천지역 영평팔경의 하나로, 포천출신들의 문사들은 물론, 외지에서 이 곳을 방문한 많은 시인 문객들도 경관을 노래하였다. 양사언(楊士彦)·이덕형(李德馨)·박순(朴淳)·이의건(李義健)·이명한(李明漢)·양만고(梁萬古) 등이 그 대표적인 문사이다. 특히 양사언은 이곳 사람으로 금수정을 즐겨 소요하면서 적지 않은 암각문을 남겼다. 양사언은 해서와 초서에 능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김구(金絿)·한호(韓濩)와 함께 조선전기 4대서가로 일컬어졌다. 특히 큰 글자를 잘 썼다.

금수정 지역의 암각문은 단순히 경승지에서 일시적 취흥에 겨워 각자한 자료와 구별된다. 이 지역의 자료는 옥병동 암각문과 함께, 이미 선현들로부터 격찬되었으며, 서체가 조선조 4대 명필가에 속하는 양사언·한석봉의 글씨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채제공은 <금수정중수기>에서 “양사언·한호의 필적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벽 위에 걸려 있는 이민구의 시문과 채팽륜의 상량문을 읽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금수정 지역의 암각문에 대해 관심을 펴보였다. 허목도 <백운계기>에서 “반석 위의 봉래와 석봉의 글씨는 감상할 만하다”고 하였다. 포천 출신의 성해응은 『동

국명산기』에서 이 암각문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 “금수정의 돌에 새긴 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곳에서 노닐 지가 이미 수십여년이 지났는데, 꿈 속에 자주 나타나 오히려 괴롭다.”⁷²⁾고까지 하였다.

금수정 지역 암각문 가운데, <자료2;6> 「증금옹시」 <자료2;7> 「경도」는 매우 중시되는 자료이다. 이 두 자료는 모두 양사언의 필적이다. 그의 문집인 『봉래집』에도 관련 기록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금석학 방면에서는 물론, 서예사에서도 중시되는 자료이다.

미확인 자료

금수정 지역에는 많은 암각문이 산재 있다. 본 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도 꽤 된다. 다음 자료는 고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시 발견하지 못한 자료이다. 후일의 재조사를 위하여 문헌기록만 정리해 둔다.

1) 李德馨刻尊巖詩

“古相公李德馨刻尊巖詩曰 金水銀沙一樣平 峽雲江雨白鷗明 尋眞誤入桃源路 莫遣漁舟出洞行 古楊蓬萊士彥筆”<永平邑誌, 樓亭題詠>

72) “金水亭石刻詩云, 余昔遊此地 已閱數十有餘年 而夢想猶勞”(李漢, 『星湖世說』 권28, 詩文門).

2) 朴思菴次廻瀾石韻

“朴思菴次廻瀾石韻曰 細風吹碧瀨 斜照媚蒼屏 仙駕淹清景 幽棲是素情 澗芳春尙照 林靄晚來輕 對此應多感 湘潭水已生 * 楊蓬萊士彥石刻”
<永平邑誌, 樓亭題詠>

3) 大王巖 ; 朴奎淳詩

在郡西五里 金水亭之上 有一巖 臺號曰 大王巖 或曰 興巖 其上流有御史灘 俗傳大王幸于此 古承旨 朴奎淳詩曰「妄飛水中島 休上御史灘 今有忘機者 來坐第一壇」刻于石壁 * 自失大王字 時人豈知名 昔日君王幸 莓苔不復生 * 丹楓飛下臺 遊魚戲入石 愛此清遠心 不知山日夕 <永平邑誌, 古跡>

4) 韓石峯書「壺中日月 醉裡乾坤」八大字

“白鷺洲在洞陰縣 南十里而遠 其水北流 抱縣治而下轉長林 一牛鳴地 稍西迤水益大 翠屏開張 爲浮雲壁 壁有韓石峯書「壺中日月 醉裡乾坤」八大字 水匯而爲潭 有亭翼然 其上爲金水亭”<李敏求,「金水亭詩序」『東洲集』2;45a)

3

백로주 암각문

조사경위

그동안 백로주 지역 암각문의 일부는 알려져 왔으나, 정확하게 고증되지 못하였다. 1996년 6월에야 본격적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처음 확인된 자료는 東岡書의 「白鷺洲」이다. 여름에는 이곳의 수량이 많아서 근접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조사가 쉽지 않았다. 같은 해 겨울, 2차 조사시 「백로주」 주변에서 素洲의 絶句를 발견하였다. 같은 암벽에 여러 쇠구의 자취가 남았으나, 판독하기 어려웠다. 이어 백로주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北辰石을 확인하였다. 12자의 암각문 자료가 처음 발견되었으나, 내용의 고증이 여의치 않아 보류되었다. 1997년 1월,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로주 수면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정황을 쉽게 살필 수 있었으며, 당시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하고, 북신석의 암각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신석 맞은편 바위에서 화서학파의 銘文을 발견한 것이다. 12자의 암각문이 화서 문인들에 의해 각자되었으며, 북신석이라는 명칭이 비로소 확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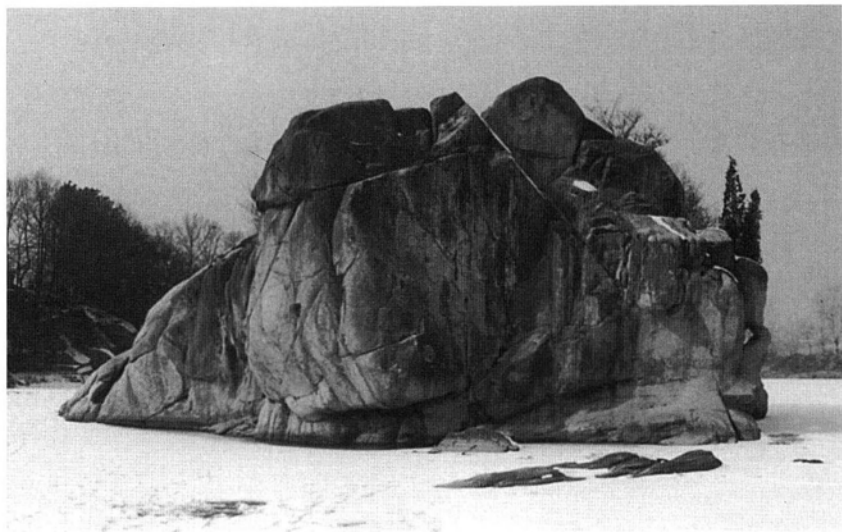
백로주 암각문의 주변 환경

백로주 역시 영평팔경의 하나로 알려진 경승지이다. 백로주는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에 있다. 소흘면과 포천읍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류되어 북쪽으로 흐르는 영평천이 작은 언덕에 부딪쳐 북쪽으로 곡수가 된다. 이 곡수머리에 큰 암석이 있으니 바위라기보다는 조그만 바위산이다.

전체가 한 개의 바위로 형상되어 마치 백로가 물 속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는 모양이다. 「백로암」이라 불리운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길이 없으나, 『영평읍지』류에 「백로암」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불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백로암의 이름을 따서 이 일대의 경승지를 총칭하여 「백로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백(李白)의 시구 「二水中分白鷺洲」에서 인용해 이름 지은 것이다. 청류의 영안은 백사가 없는 대신 괴암석이 축대처럼 쌓여져 있어서 마치 운하의 느낌마저 들게 한다. 나루를 띄어놓고 고기잡이도 좋거니와 노를 저어 가노라면 그 무슨 신비의 지역으로나 통하는 수로처럼 낭만적이다.

이 지역은 포천의 명사 양사언(楊士彦)·양만고(楊萬古)·조경(趙綱) 뿐만 아니라, 송시열(宋時烈) 등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배를 타고 즐겨 놀

던 곳이다. 주변에는 경관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여러 명사들이 남긴 암각문이 산재해 있다. 이곳은 지금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선비들이 노닐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최근 백로암 북쪽 하천 부지에 잔디와 수목을 심어 백로주유원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맞고있다.



▲ 백로주 북신석 전경

백로주 암각문에 관련한 문헌자료

백로주 암각문은 옥병동이나 금수정 지역의 자료처럼 검증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 『영평읍지』의 누정제영(樓亭題詠)이나, 성해옹의 『동국명산기』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의 다음 기록에서 편린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① 在郡南十里 宋尤菴詩曰 山號白雲洲白鷺 雲如鷺白鷺如雲 須臾雲散鷺飛去 只有沙鷗爲我群 白洲詩曰 身如白鷺洲邊鷺 心似白雲山上雲 孤吟盡日不知返 雲去鷺飛誰與群 趙龍洲詩曰 潭清先受欲生月 松老常浮不盡雲 縱有王維畫不得 君今獨在非人群 楊鑑湖萬古詩曰 東風花落水中石 西日客眠松下雲 醉把一盃酬白鷺 世間誰與作吾群

* 白鷺洲三字 東岡命刻 <永平邑誌, 樓亭題詠>

② 白鷺洲在永平縣南十里大路傍 抱川之水 至萬歲橋與永平錦繡山南之水合而至此 中分數十步 而復合大石盤陀 其間高數十丈 凡三層層 輒有楓松生四面皆澄潭 故取李白詩二水中分白鷺洲之句 名之 今水道屢改二岐 合爲一岐 石上刻尤翁白洲龍洲鑑湖絕句 洲西巖 又刻白鷺洲三字 東崖石壁 亦奇峭 <東

國名山記, 自然經室藏>

①의 기록에서 백로주를 소재로 한 송시열·조경·양만고, 그리고 백주(白洲)라는 호를 가진 문인의 시를 살필 수 있다. 이 싯구가 실제 백로주 주변의 암벽에 각자된 것인가를 수차례 조사하였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각자의 문집에 전하는 시를 『영평읍지』에 전재했을 가능성과 암각된 자료이나, 소실 또는 미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

②의 기록에서 “바위 위에 우암·백주·용주·감호의 절구를 새겼으며, 서쪽 바위에 백로주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자료가 암각된 싯구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싯구는 <자료3;2> 뿐이다.



백로주 암각문의 내용

위의 기록을 중심으로 백로주 주변의 암각문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보이면 다음과 같다.

〈자료3:1〉 백로주(白鷺洲)

<자료3:1>은 철원부사를 지낸 「동강(東岡)」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의 글씨이다. 「동강(東岡)」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기묘년(己卯年) 가을에 철원부사를 지냈고, 이곳 포천과 관련을 가졌던 묵객(墨客)임에는 틀림이 없다. 「동강」이란 호를 사용한 이가 무려 13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포천과 관련된 이는 김우옹(金宇頤; 1540-1603)과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다. 이 두 사람의 생존연대 중 기묘년은 1579년 뿐이다. 철원부사라는 직책이 전제되는데, 김우옹이 철원부사를 지



白鷺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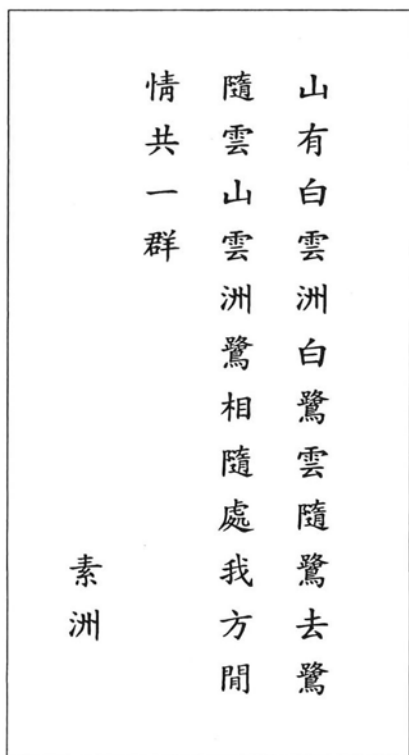
己卯秋鐵原府使東岡書

- * 글씨크기: (大) 40cm × 45cm
(小) 15cm × 13cm
- * 제작연대: 1579년

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쨌든 이 암각문의 연대는 기묘년(1579; 선조12)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평읍지』에 “「백로주」 세 자는 동강이 명해서 새겼다(白鷺洲三字 東岡命刻)”고 한 것으로 보아, 글씨를 써서 석공에게 명하여 새기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서체로 힘차고 원숙하게 쓰여진 글씨체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다.

〈자료3:2〉 백로주시(白鷺洲詩)





- * 글씨크기: 6cm×6cm
- * 규 모: 42cm×105cm
-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3;2>는 고문헌 기록에서 검토하였듯이 백로주 바위 위에 암각된 우암·백주·용주·감호의 절구를 차운한 것으로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 시를 지은 소주(素洲)라는 호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연대 추정이 불가하다. 그러나 17C 후반 무렵에 제작되었음은 가늠할 수 있다. 이 시작품을 번역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山有白雲洲白鷺	산에는 흰구름, 물가엔 백로가 있는데
雲隨鷺去鷺隨雲	구름은 백로 따라, 백로는 구름따라 가네
山雲洲鷺相隨處	산엔 구름, 물가엔 백로가 서로 따르는 곳에
我方閒情共一群	나 또한 한가롭게 한무리가 되었다네.

〈자료3:3〉 북신석 암각문(1); 「萬歲立極 衆星拱之」



▲ 북신석 암각문 탁본광경



萬歲立極
衆星拱之

* 글씨크기: 58cm×104cm

* 규 모: 21cm×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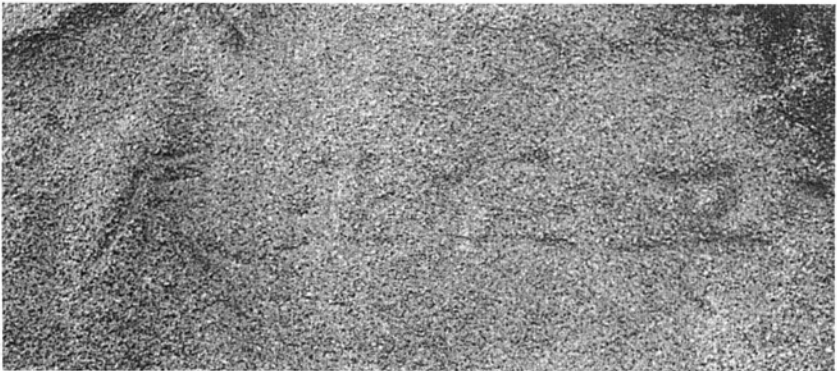
* 제작연대: 조선 말기

<자료3;3>은 백로주의 바위 맨 윗부분에 각자된 것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백로주 주변에 있는 만세교(萬歲橋)와 관련해서 지은 문장으로, 『논어』의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拱之.<爲政>”에서 일부를 선취한 것이다. 「萬歲立極 衆星拱之」의 뜻은 “만세토록 북극성

자리에 서시니, 못 별들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내용으로 보아 관리가 충정을 표하기 위해 각자했을 개연성이 짙다. 백로주 다리 위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그같은 배려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자료는 연대와 글씨를 쓴 사람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류해 두었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자료 <자료3;5>를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자료는 화서 이항로의 문인인 유기일(柳基一)이 쓰고, 그의 아들 이승웅(李承鷹) 등이 새긴 것이다. 각자한 연대는 화봉산 암각문의 조성 연대와 같은 시기인, 1893년(고종30년)으로 추정된다.

<자료3:4> 평양북신(平陽北辰)



辰 北 陽 平

* 규 모: 26cm × 120cm

* 글자크기: 25cm × 25cm

* 제작연대: 조선 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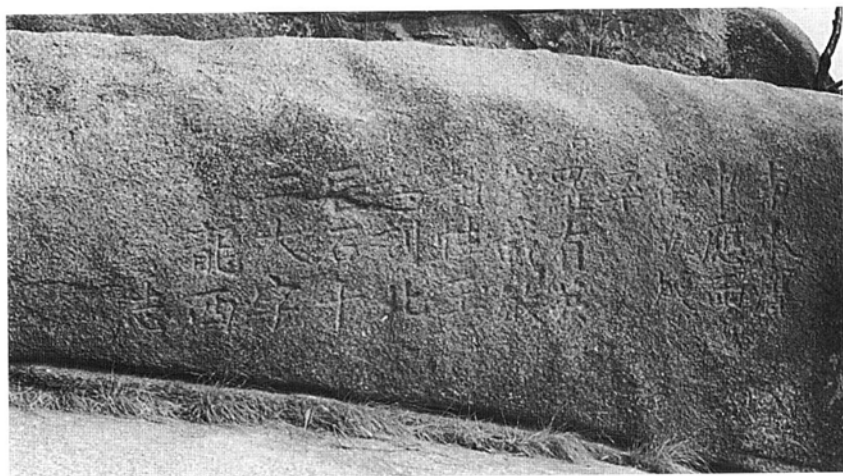
<자료3;4>는 앞에서 살핀 <자료3;3>과 동시에 각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자료3;3>을 관련해서 후대에 각자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平陽北辰」에서 「平陽」은 ‘요(堯)임금 시대의 도읍지’를 뜻한다. 곧 태평스러운 세상이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北辰」은 ‘북극성’을 뜻한다. ‘임금의 자리’가 바로 북쪽에 있으며, 이는 곧 임금을 뜻한다. 결국 “平陽北辰”의 뜻은 “태평스러운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성군(聖君)의 덕화(德化)를 칭송하고 흠모하는 뜻에서 이 암각문을 새겨 놓았던 것 같다.

<자료3;5> 북신석 화서문인대명(北辰石華西門人帶銘)

<자료3;5>는 1997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이다. 만세교 휴게소를 지나 백로주로 진입하는 길목 우측 도로변에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바위 뒷쪽에 이 자료를 각자해 놓았다. <자료3;3> <자료3;4>와 마찬가지로 새겨 놓았는데, 확인 결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였다. 명칭은 필자가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 용서 선생의 암각문이 있는 바위 뒷면



二辰爲趙崔羅率崔申李
龍大石刻世載有 ?應承
志西字十北玉敬英 成雨膺

* 글씨크기: 20cm × 15cm

* 규 모: 215cm × 58cm

* 제작연대: 조선 말기

<자료3;5>는 북신석(北辰石)에 새겨 놓은 12자의 큰 글씨가 용서(龍西)라는 이가 쓴 것임을 기록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북신석의 암각문은 “이승응(李承膺)·신응우(申應雨)·최?성(崔?成)이 나유영(羅有英)·최재경(崔載敬)·조세옥(趙世玉)을 거느리고 와서 북신석(北辰石)에 12자의 큰 글씨를 새겼으며, 용서(龍西)가 쓴 것이다”라는 사실을 새겨 놓았다.

용서(龍西)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 유기일(柳基一)의 호이다. 최익현(崔益鉉)의 문하인 그는 포천지역에서 화서학과(華西學派)의 학통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다음으로 그가 써 놓았다는 북신석의 12자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여러 차례 답사해서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는 바로 앞의 <자료3;3> <자료3;4>를 지칭한 것이었다. <자료3;3> 「萬歲立極 衆星拱之」 8자와 <자료3;4> 「平陽北辰」 4자를 합치면 12자가 된다. 이 글씨를 용서 유기일이 쓴 것이며, 이 글씨를 새겨놓은 바위가 북신석이다. 여기서 백로주 중앙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 ‘북신석’으로 지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의 향토사가들조차 아직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북신석의 암각문 자료도 미완결된 채 남아 있었을 것이다.

백로주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

백로주 지역에도 적지 않은 암각문 자료가 산재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발견된 자료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헌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자료도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바위 위에 우옹(尤翁)·백주(白洲)·용주(龍洲)·감호(鑑湖)의 절구(絶句)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는 소주(素洲)라는 이의 절구 1수 뿐이다. 이 자료 주변에 있음직 하여 수 차례 답사하였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작자와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제약적이다. 북신석에 각자된 암각문 <자료3;3> <자료3;4>의 경우, <자료3;5>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된 셈이다. 북신석의 암각문 12자는 화서학과들의 주자학적 세계관을 시사하는 자료로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 북신석의 암각문은 춘추대의(春秋大義)의 「존왕양이(尊王攘夷)」 사상을 구체적으로 증시하는 자료이다. 화서학과들의 중심 인물인 김평묵·최익현·유기일 등이 포천 사람이요, 이들의 근거지인 포천군에 이같은 자료가 현존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북신석의 암각문은 조선유학사상사의 한 실증적 현장을 보여준다. <자료

3;5>는 화석학과 문인들의 활약을 시사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백로주 지역의 암각문은 지속적인 발굴작업이 필요하다.

여 백

4

추동리·화봉산암각문

조사경위

추동리와 화봉산의 암각문은 가장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평팔경을 중심으로 암각문을 조사하던 중 최종규 문화원장의 제보로 이들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화서학과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과 관련된 자료였다. 시대나 성격상 앞의 자료와 거리감이 있고, 더욱이 한국근대사에는 전적으로 문외한이었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이후 3년이 지난 뒤에도 현장자료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척이 없었다. 금번 이 책자를 간행함에 있어 겨우 정리하였으나, 무리가 없지 않다. 1993년 이래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거듭하였는데, 추동리 암각문은 처음 조사 때보다 훼손상태가 심하여 보존 대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둘러 이들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추동리·화봉산 암각문의 역사적 배경

1. 화서학파와 척사위정 운동

추동리와 화봉산의 암각문은 조선말기에서 개화기 전후하여 활동한 화서학파(華西學派)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와 그의 문인이며 포천 출신인 최익현(崔益鉉)·유기일(柳基一) 등이 그들의 주자자학적 세계관과 척사위정(斥邪衛正)의 결연한 의지를 새겨 놓은 것들이다. 이 암각문 자료는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이 포천지역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우선 기존의 연구업적을 통해 화서학파의 척사위정론과 항일의병활동 양상을 대략 살펴기로 한다.⁷³⁾

73) 화서학파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상사연구회에서 펴낸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1)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학행

화서 이항로는 1792년 경기도 양근(지금의 양평군) 벽계리에서 태어났다. 1868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한 번도 현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기호 노론의 후예로서 학통과 도통을 이은 대표적인 학자였다. 먼저 그의 학통은 『학문도통연원도(學問道統淵源圖)』에 의하면 송시열(宋時列)과 같은 시대의 인물인 이단상(李端相)으로부터 연원하여 김창흠(金昌翕), 김양행(金亮行), 이우신(李友信)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그의 이러한 학통은 다소 미미한 점이 없지 않다. 반면 도통의 전승은 뚜렷하다. 그의 학행(學行)을 이해하는데도 더욱 도움이 된다.

그는 일찍이 33세 때(1824년) 선조(宣祖)의 어필(御筆)과 송시열의 친필이 새겨져 있는 경기도 가평군의 조종암(朝宗巖)을 찾아 송명멸청(崇明滅淸)의 존화외리(尊華義理)를 가슴 속에 새겼으며, 45세 때(1836)는 청주 화양동에 있는 송시열의 묘와 만동묘(萬東廟)를 참배하였다. 만동묘는 임지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파견한 명의 신종(神宗)을 기리는 곳이다. 그가 열렬히 흠모하였던 이는 바로 송시열이었다. 그는 도통의 줄기를 공자(孔子)-주자(朱子)-송자(宋子)로 잡을 정도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대의(春秋大義)와 맹자의 의리지사(義理之辭) 또는 벽이단(闢異端), 그리고 주자의 노불변척(老佛辨斥)과 『통감강목(通鑑綱目)』 등을 통한 “존화양이(尊華揚夷)”의 대의를 도학적 맥락으로 삼았다.

이러한 도통은 그의 여러 저술에서도 나타난다. 저술은 자신이 직접한 것도 있고 아들이나 문인들을 시켜 편찬케 한 것도 있다.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이어 장남 이준(李竣)에게 『주자대전집차

(朱子大全集節)』를 편찬케 하였다. 그의 문집인 『화서집(華西集)』에 그의 기호 노론의 학통과 도통을 잇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여 있다.

그는 벽이단론(關異端論)을 바탕으로 몸소 척사위정(斥邪衛正)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75세 때(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고종은 좌의정 김병학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에게 승정원동부승지를 제수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러 문인들을 대동하고 직접 서울로 가서 노쇠함을 이유로 사직소를 올렸다. 다시 공조참판에 제수되자 또 사직소를 올렸다. 그러면서 사직소의 내용에다 현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이것을 발원처로 하여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과 의병 운동이 전개되었다.

2) 화서학파 문인

이항로의 뒤를 이은 화서학파는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주자학의 최후·최대의 면모를 장식한다. 그의 문하중 대표적인 인물로 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최익현(崔益鉉)·유인석(柳麟錫) 등을 들 수 있다. 김평묵의 뒤를 잇는 이들로 최익현·홍재구(洪在龜)·유기일(柳基一) 등이 있으며, 유중교의 뒤를 잇는 이들로 이근원(李根元)·유인석·유중악(柳重岳)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자학설과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낸다.

김평묵(1819-1891)은 포천에서 청풍 김씨(淸風金氏) 성양(聖養)의 아들로 태어났다. 24세 때 화서의 문하에 나아가 수제자의 위치에 섰다. 병인양요 때 유중교와 함께 스승 이항로를 모시고 상경하였으며, 척사위정

의 상소에 적극 가담하였다.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의 소수(疏首) 이만손(李晩遜)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나주의 지도(智島)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저술로 『이정전서집의(二程全書集疑)』 『근사록부주(近思錄附註)』 등을 편찬하였으며, 화서 이항로에 관련한 여러 책을 편집하였다.

유증교(1832-1893)는 서울에서 고흥 유씨(高興柳氏) 조(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와 충북 제천 장담으로 이사해 살았다. 화서의 문인으로 김평묵에게도 수학하였다. 김평묵 만큼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최익현(1833-1906)은 포천에서 경주 최씨(慶州崔氏) 대(垓)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화서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제주도로 유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생 끊임없는 상소와 강고한 척사위정·의병 운동으로 점철되었다. 만동묘와 서원 철폐 반대, 원납전 중지, 당백전의 혁파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가 하면,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지자 도끼를 들고 궐문 앞에 엎드려 척화소를 올린 것은 유명한 일이다. 1906년 이후로는 의병 운동으로 전환하여 적극 이끌어 갔다. 대마도에서 74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유인석(1842-1915)은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에서 고흥 유씨 중곤(重坤)의 아들로 태어나 만주 땅에서 죽었다. 14세 때 화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의 활동은 의병 운동기에 두드러진다. 1895년에는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충주·제천 등지에 활약하다가 실패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3)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과 의병활동

화서학파의 운동과 철학은 모두 「벽이단론(關異端論)」을 이은 척사론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서가 주장한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尊華攘夷)”는 춘추의리(春秋義理)는 그들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다.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은 춘추 의례에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화서학파의 역사관을 잘 보여준다.

화서학파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은 개항을 전후하여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째 시기는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거쳐 대원군의 쇄국정책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항로가 직접 참여한다. 이항로는 사직소의 내용 가운데 자신의 현실인식과 내수어양책을 제시한다. 그는 화이론(華夷論)의 입장에 서서 서양인을 윤리도덕이란 조금도 없고 오직 물질적인 것과 성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오랑캐요, 그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양의 물품을 사치품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통상하면 우리 경제를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시기에는 화서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평묵과 홍재구가 중심이 된 「병자연명유소(丙子聯名儒疏)」와 최익현의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가 있다. 이 당시의 척사위정 운동은 일본과의 개국통상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배척 대상은 일본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서학파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셋째 시기에는 김평묵의 제자이자 사위인 홍재구와 홍재학(洪在鶴)이 올린 「관동연명유소(關東聯名儒疏)」 사건이다. 김평묵은 이 때문에 전라

도 지도로 유배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척사위정운동은 전국적인 유생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척사위정 운동은 1890년대 중반 이후 의병운동으로 전개 된다. 의병 운동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충의정신에 입각하여 외적의 침략에 자발적으로 항쟁한 군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의병운동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의 개혁에 항거하여 발발하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의병 운동이 참여하였다. 1909년 군대해산 이후에는 해산당한 병사와 평민, 의병진까지 합세하여 일본과 맞서는 범국민적인 대일본 전쟁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화서학파의 문인인 유인석과 최익현의 의병 활동이 돋보인다. 이들은 1906년 이후 상소에서 의병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의병운동에서도 존왕적 성격은 벗어나지 못하였다.

2. 화서학과 문인들이 남긴 암각문

화서학과 문인들이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등지에 남긴 암각문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화서 이항로가 척사위정의 뜻을 다짐하는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가평군의 조종암(朝宗巖)에 각자된 암각문이었다. 그는 33세 때(1824년) 선조의 어필과 송시열의 친필이 새겨진 조종암을 찾아 숭명멸청(崇明滅淸)의 존화 의리(尊華義理)를 가슴 속에 새겼다. 조종암에는 선조의 어필인 「萬析必東」「再造藩邦」과 효종이 이경흥(李敬興)에게 준 「日暮道遠 至痛在心」의 암각문이 있다. 뒤의 자료는 송시열의



◀조종암의 암각문

글씨이다. 45세 때 찾은 화양계곡에는 명나라의 신종(神宗)이 쓴 「非禮不動」이라는 암각문이 있다.

화서가 거주하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여문리 벽계마을에는 화서가 새겨 놓은 암각문이 여러 점 현전하고 있다. 사당 앞 바위에는 전면 「霽月臺」라 전서로 크게 새기고, 왼편에는 작은 글씨로 「莫遣微雲 點綴練光 極虛極明 以配太陽」이라 새겨 놓았다. “작은 구름을 보내어 맑은 빛을 얼룩지게 하지 말라. 지극히 텅비우고 밝게 하여 태양에 짝하게 하리니”라는 뜻이다. 이밖에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의 문집에도 나타난다.



▼ 안성 비봉산 암각문

▲ 제월대 암각문



위의 암각문은 화서가 정미년(丁未年; 1847) 여름에 직접 써서 새겨 놓은 것이다. 화서는 이밖에도 벽계 집 주변의 기암괴석에 이름을 붙이고 각자(刻字)해 놓았다. 참고로, 옆의 암각문은 안성읍 비봉산 장군암에 새겨진 자료인데, 1873년(고종10)에 제작된 것이다. 화서학파의 한 사람인 강복선(姜復善)이 쓴 것을 각자한 것이다.

1. 추동리 암각문

추동리의 암각문은 창수면 추동리에 있다. 포천읍내에서 325번 지방도를 따라 창수면쪽으로 추동2리에 이르면, 고일리로 들어서는 입구에 「추동1교」 다리가 있으며, 바로 곁에 이 자료가 방치되어 있다. 다음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2개의 바위에 각자한 것인데, 1993년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는데, 1997년 1월에 확인할 당시는 거의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처음 조사 당시에도 최종규 문화원장님의 제보에 의하면, 바위 1개가 더 있었는데 공사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암각문이 있었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바위 2개에 각자된 3개 뿐이다. 편의상 암각문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華西帶銘> <華西書手銘> <式閭>라 지칭하기로 한다. 이 자료들의 제작 연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서 신미양요(1871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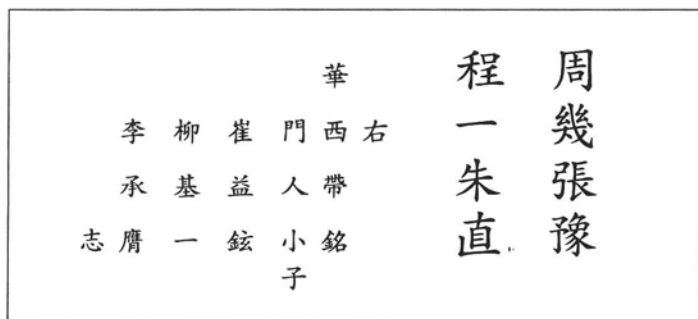
▲ 1993년 조사 당시의 전경



▲ 1997년 조사 당시의 전경

〈자료4:1〉 화서대명(華西帶銘)





* 글씨크기: (大) 20cm × 25cm

(小) 15cm × 20cm

<자료4:1> 「화서대명(華西帶銘)」은 암각된 명문(銘文)에서 필자가 편 의상 지칭한 명칭이다. 이 암각문은 화서 이항로가 제자 최익현·유기일, 아들 이승응(李承膺)과 연명해서 새겨 놓은 것이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20cm×25cm, 작은 글씨가 15cm×20cm 정도이다. 내용은 송대(宋代)의 대표적인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자(程子)·주자(朱子)의 인품과 학문적 특징을 집약해 칭송한 것이다.

周幾張豫 주돈이의 기밀(機密), 장재의 예비(豫備)

程一朱直 정자의 전일(專一), 주자의 방직(方直)

주돈이는 염계(濂溪) 선생으로 일컬어지며,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설(通說)』 등을 저술해 이기학(理氣學)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는 그의 제자이다. 장재는 횡거(橫渠) 선생으로 불려 지는데, 기(氣)에 의한 우주 구성, 기질을 변화시키는 수양론(修養論)을 주장하여 주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저술로 『동명(東銘)』 『서명(西銘)』 등이 있다. 정자(程子)는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정호는 명도(明道) 선생으로 흔히 불려지며, 우주의 본성과 사람의 성(性)이 본래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이는 이천(伊川) 선생으로 불려진다. 『역경(易經)』 『춘추전(春秋傳)』 등을 저술하였으며, 처음으로 이기(理氣)의 철학을 제창하여 유교 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였다. 주자(朱子)는 주희(朱熹)를 지칭한다. 경학(經學)에 정통하여 송학(宋學)을 주자학이라 칭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자이다. 『근사록(近思錄)』 『시집전(詩集傳)』 『통감강목(通鑑綱目)』 논어·맹자의 집주(集注) 등을 저술하였다.

위의 송대 유학자들은 바로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이들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은 이들의 업적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화서학파는 우리나라 주자학의 최대, 최후의 학파로 이들의 학통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명분은 여기서 근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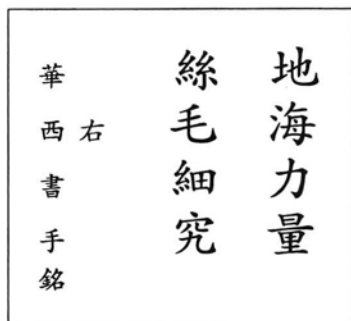
〈자료4:2〉 화서서수명(華西書手銘)

다음 <자료4:2>는 화서 이항로가 직접 쓰고 새긴 것이다. 앞의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했을 것으로 본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24cm×24cm, 작은 글씨가 15cm×20cm 정도이다.



〈자료4;2〉 화서서수명(華西書手銘)





* 글씨크기: (大) 24cm × 24cm

(小) 15cm × 20cm

* 글 씨: 李恒老 書

이 자료는 화서 이항로의 성품과 학문적 자세를 시사하는 자료이다.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地海力量 땅을 지고 바다를 넣을만한 힘과 도량을 기르고
絲毛細究 실과 터럭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탐구할 것.

위의 내용중 ‘地海’는 ‘地負涵海’에서 온 말로, “땅을 지고, 바다를 넣을 만큼 광활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화서 이항로가 평소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표로 삼았던 글귀로 생각된다.

〈자료4:3〉 식여(式閼)





勉
翁

式
閣

* 글씨크기: (大) 30cm×36cm

(小) 15cm×35cm

* 글 씨: 崔益鉉 書

이 자료는 면암 최익현이 써서 새겨 놓은 것이다. 앞의 두 자료보다는 나중에 제작했을 개연성이 짙다. 스승인 화서의 글씨를 새겨 놓고 이 암각문 주위를 오가는 이들로 하여금 경의(敬意)를 표하도록 하기 위해 각

자한 것이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30cm×36cm, 작은 글씨가 15cm×35cm 정도이다. 현재는 도로 공사로 인해 거의 매몰될 직전에 처해 있다. 보존 대책이 절실하다.

2. 화봉산 암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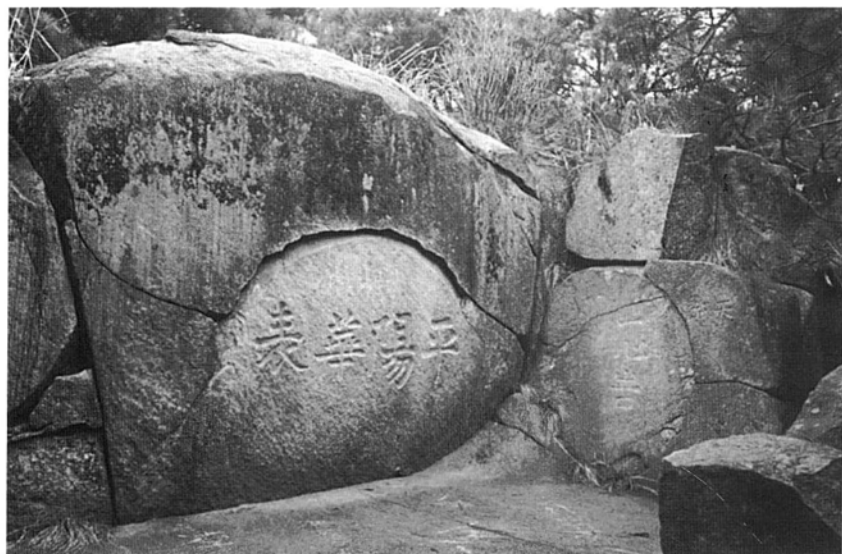
화봉산(花峯山)은 화산(花山)이라고도 한다.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방축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182m이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선생의 신위를 모신 화산서원(花山書院)이 이 산기슭에 있다. 화산서원 뒷편에 마을이 있고, 산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 절이 있다. 이 절을 끼고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화봉산의 8부 능선 쯤에 병풍을 둘러치고 자리를 편듯한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바위에 화서 문인들의 필적을 새긴 암각문 3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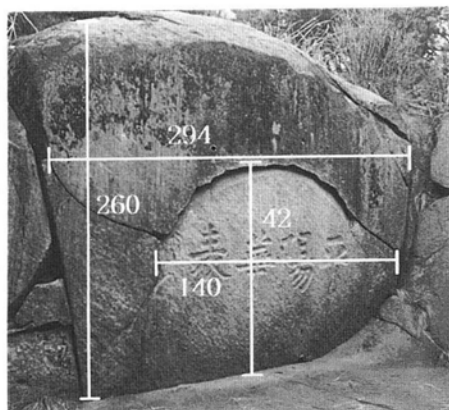
화봉산의 암각문 자료는 구체적으로 조성 연대와 조성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 부분 좌우에 각각 화서문인들의 척사위정의 결의를 새겨 놓고는 좌측에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 좌측의 자료에 “이승웅(李承膺)·이유선(李裕善)이 이규용(李圭容)·나유영(羅有英)·안항선(安恒善)·조세옥(趙世玉)을 이끌고 와서 화표석(華表石)에 큰 글씨 20자를 새겼으며, 이는 유기일(柳基一)이 쓴 것이다”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조성 연대는 계사년(癸巳年) 봄, 즉 1893(고종30)이다. 「화표석」이라는 명칭은 암각문 자료 「平陽華表」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5:1〉 화표석(華表石)(1)

이 자료는 중앙부 우측 하단에 새겨져 있다. 화표석(華表石)은 바로 이 자료와 좌측에 새겨진 <자료5:2>를 함께 지칭한 것이다. 글씨 한 자의 크기는 33cm×42cm 정도이다. 「平陽」은 요(堯)임금 시대의 도읍지로,

중국의 표상이기도 하다. 흔히 태평성세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華表」는 요임금 시대 때 위정자(爲政者)에 대한 불만이나 비방을 백성들이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로 등에 세워 놓았던 표목(表木)을 말한다. 백성들의 언로(言路)를 열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요즈음의 민원고발카드나 대자보 같은 것이다. 여기서 「平陽華表」는 요임금 시대의 표석, 즉 백성들의 언로를 표상한다. 화서문인들이 이같은 글귀를 새겨 놓은 뜻은 바로 그들의 척사위정의 지표를 결연히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대의 위정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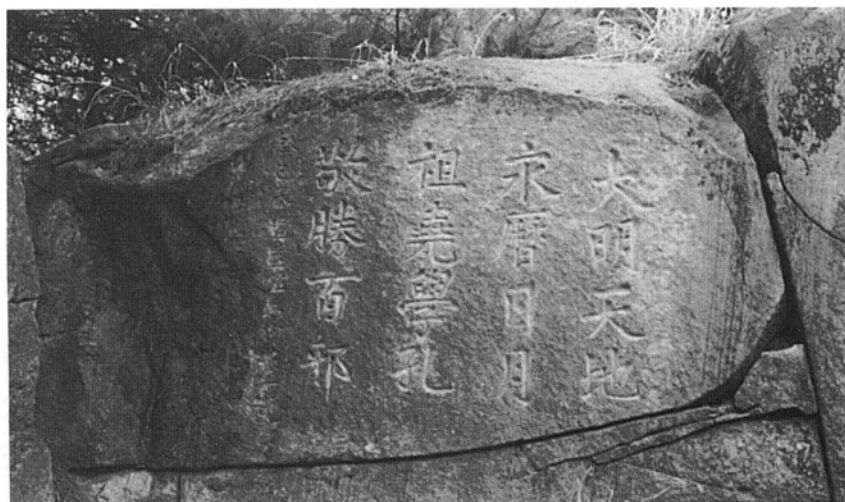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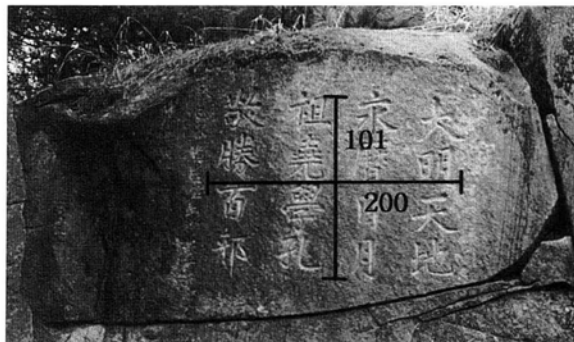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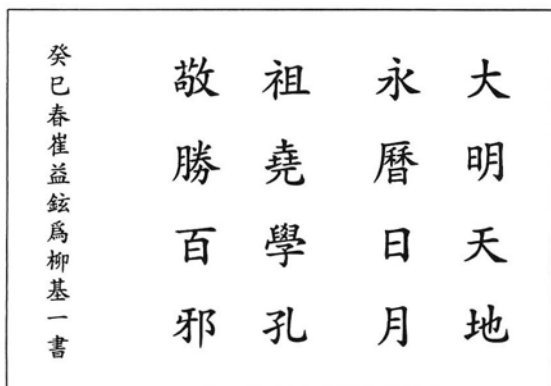
◀ 화표석(1)

* 글씨크기: 33cm × 42cm

* 글씨: 柳基一

〈자료5:2〉 화표석(2)





◀ 화표석(2) 규모

- * 글씨크기:
(大) 24cm × 24cm
(小) 9cm × 10cm
- * 글씨: 崔益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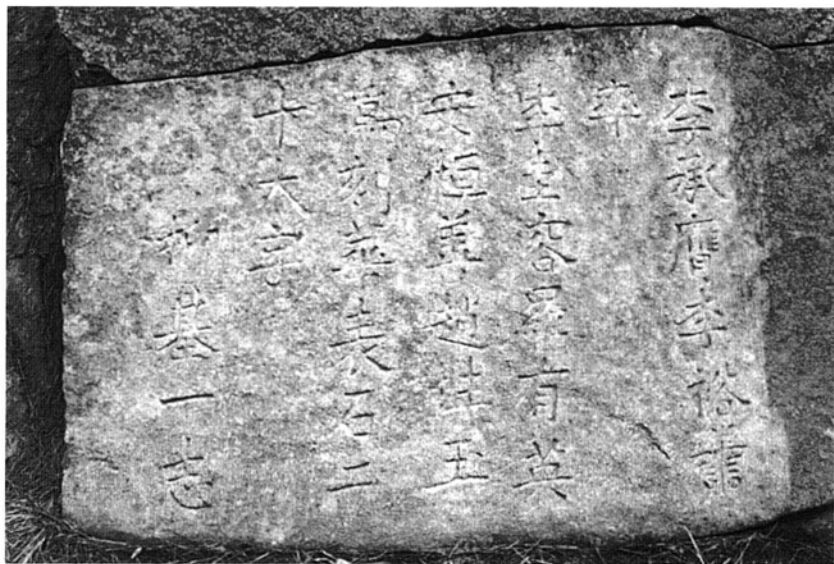
이 자료는 화서학파의 주자학적 세계관과 척사위정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大明」은 명나라를 높여 부른 말이다. 「永曆」은 명나라 영명왕(永明王)이 16년간(1647-1662) 사용한 연호이다. 이 화표석의 내용을 풀이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大明天地 위대한 명나라의 천지요
 永曆日月 명나라의 해와 달이네
 祖堯學孔 요임금을 조종으로 공자를 배워서
 敬勝百邪 삼가 온갖 사특함을 이기자.

전반부에는 숭명(崇明)의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후반부에는 주자학적인 척사위정의 지표가 나타나 있다. 뒷부분에 “계사년(1893 봄에 최익현이 유기일을 위해 쓴다”는 기록이 있어 조성 연대와 글쓴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료5:3〉 화표석(3)





李承膺李裕善	率	李圭容羅有英	安恒善趙世玉	爲刻華表石二	十大字	柳基一志
--------	---	--------	--------	--------	-----	------

* 글씨크기: 12cm×12cm, * 글씨: 柳基一

<자료5;3>은 중앙부분 좌우에 새겨진 <자료5;1> <자료5;2>를 각자 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비로소 화봉산의 암각문 자료가 화표석(華表石)으로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에서 보듯이 화표석은 화서의 아들인 이승웅(李承膺)·이유선(李裕善)이 이규용(李圭容)·나유영(羅有英)·안항선(安恒善)·조세옥(趙世玉)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다 각자한 것이다. 끝부분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기일이 기록한다고 하였다. 가로·세로 164cm×193cm 크기의 면적에 각자하였는데, 글씨 크기는 12cm×12cm 정도이다.

이자료는 백로주 지역의 북신석(北辰石)에 각자된 내용과 직접 관련을 갖는다. 이승웅·나유영·조세옥은 북신석의 암각문 구성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밖에 「一心岩」이라는 암각문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뒤에 누군가가 별도로 각자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화서 이항로(李恒老)의 사당 주변에 「一柱岩」이라는 암각문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서의 문인이나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식자층에서 각자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천에는 암각문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영평천 줄기를 따라 형성된 영평팔경에 여러 명현들의 묵적(墨跡)이 남아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강남대 학술조사단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반수에도 못 이룰 것이다. 옥병동 암각문의 경우 다행히 일찍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무려 11점이나 되는 자료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김수증의 <제이양정벽>을 제외하곤 모두 1588년(선조21)에 제작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완연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러나 네 차례의 조사에서도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종필(李鍾弼) 씨에 의하면 물밑에 잠겨 있다는 「蒼玉屏」 세 글자도 아직 접하지 못하였고, 『사암집』의 여러 글 가운데 소개된 「白鶴臺」 「鳴玉灘」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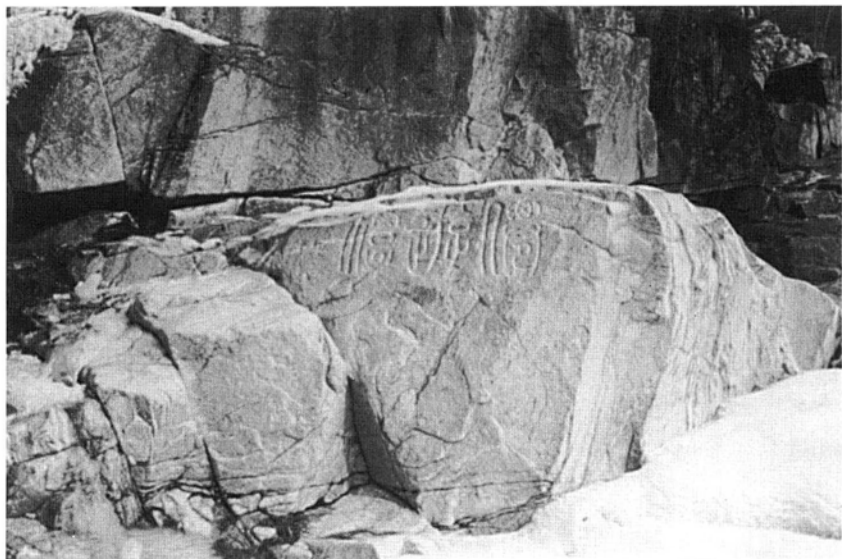
금수정 암각문의 경우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료가 많다. 고문헌 자료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암각문 가운데는 사료적 가치가 뛰어난 것도 있다. 이덕형의 <준암시(尊巖詩)>, 박순의 <차회란석운(次廻瀾石韻)>, 대왕암 석벽에 각자하였다고 전하는 박규순(朴奎淳)의 5언절구, 부운

벽(浮雲壁)에 각자되었다는 한석봉의 글씨 「壺中日月 醉裡乾坤」 8자 등은 그 대표적인 자료이다.

백로주 지역에도 적지 않은 암각문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발견된 자료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헌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자료도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바위 위에 우옹(尤翁)·백주(白洲)·용주(龍洲)·감호(鑑湖)의 절구(絶句)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는 소주(素洲)라는 이의 절구 1수 뿐이다. 이 자료 주변에 있음직하여 수 차례 답사하였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작자와 제작 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제약적이다. <자료3;3> <자료3;4>의 경우, <자료3;5>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대는 확인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자료는 화서학과들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추동리·화봉산의 암각문은 화서학과 문인들이 남긴 자료로, 경기도 가평군, 안성군 등지에 전하는 암각문 자료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추동리의 암각문 <화서대명> <화서서수명> <식여> 등은 대체로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서 신미양요(1871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짙다. 이들 자료는 화서 이항로의 사상과 학문을 집약해 보여준다. 화봉산의 암각문은 구체적으로 조성 연대와 조성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성 연대는 1893년(고종30)이다. 「화표석」이라는 명칭은 암각문 「平陽華表」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분 좌우에 각각 화서문인들의 척사위정의 결의를 새겨 놓고는 좌측에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 추동리·화봉산의 암각문은 화서학과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시된다.

이밖에 본 조사단은 선유담(仙遊潭)에서 암각문 1점, 신북면 고일리 입구에서 암각문 2점을 확인하였다. 「仙遊潭」이라고 각자된 다음 자료는 백운계곡 관광지에서 발견하였다. 제작 연대나 서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 고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 선유담 암각문

신북면 고일리 입구에서 확인한 암각문 2점은 모두 추동리·화봉산의 암각문과 관련된 자료로 보인다. 화서학과 문인들이 주장한 존왕양이의 실재를 여기서도 살필 수 있다. 이 두 자료는 도로 공사로 인해 하단부가 매몰된 것을 본 조사단이 파낸 다음 촬영한 것이다.



◀ 고일리 암각문

* 글씨크기:

(大) 24cm×24cm

(小) 17cm×17cm

큰 글씨는 「風雨不動 安得大庇」이며, 작은 글씨는 「平陽奧民」이다. 이 자료는 추동리·화봉산 암각문처럼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시된다. 「平陽奧民」은 백로주 북신석의 「平陽北辰」, 화봉산 화표석의 「平陽華表」와 일련되는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포천군이 화서학파의 중요 기점이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고증이 필요하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본 조사단이 확인한 것은 그 반수도 안된다. 그리고 처음 조사 당시만 해도 건재하였던 자료가 지금도 께몰되어 가고 있다. 추동리 암각문은 1993년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는데, 1997년 1월에 확인할 당시는 거의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종

규 문화원장님의 제보에 의하면, 본래는 바위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사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바위 2개 뿐이다. 또 하나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옥병동의 「와준」과 같이 물가에 접한 암각문은 언젠가는 물에 휩쓸려 사라질 위기에 접해 있다. 신북면 고일리 입구의 자료는 아직 고증도 안된 채 매몰되었을 것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보존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로 보아, 행정적인 지원 아래 본격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귀중한 자료는 문화재 지정도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현장조사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최종규 님, 이현문 님, 이종훈 님·변진수 님에게 감사드린다. 강남대 학술조사단원 모두에게도 고맙다는 뜻을 함께 전한다.

<참고문헌>

朝鮮明宗實錄,

朝鮮宣朝實錄

國朝人物考,

淸州梁氏世譜

永平郡邑誌(규장각소장)

堅城誌(규장각 소장)

李敏求, 「金水亭詩序」(『東洲集』 2;45-46)

蔡彭胤, 「金水亭重建上樑文」(『希菴集』 25;7-9)

蔡齊恭, 「金水亭重修記」(『樊巖集』)

成海應, 『東國名山記』(국립도서관소장, 신활자본)

포천군지편찬위원회, 『抱川郡誌』, 포천군, 198

金東旭, 「蓬萊遺墨」 『국어국문학』 58-60호, 국어구문학회,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홍순석, 「포천 옥병동 암각문에 대하여」 『향토사연구』, 6집, 향토사연구
구전국협의회, 1993.

홍순석, 「포천 금수정 암각문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2집, 강남대 한
국학연구소, 1995.

향토문화유적사료 (4)

포천의 암각문 / 홍순석 著

1997년 2월 15일 인쇄

1997년 2월 15일 발행

발행처 **포천문화원** (0357) 32-5055

인쇄처 **한국문화사** (02) 464-7708

〈비매품〉

암 각문

암각문은 분명 금석문의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금석문 자료집이나 관련 연구물에 소개된 예는 별반 없다. 반면, 암각화는 선사시대 유적의 하나로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암각화가 바위나 절벽등에 그림을 새겨 놓은 것이라면, 암각문은 문자를 새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암각문은 전국 도처의 경승지나 유적지에 산재해 있다. 옛날부터 시인·묵객들은 자신의 화포를, 지사들은 결연한 의지를 바위 등에 새겨 놓았다. 명필가의 목적이 암각문으로 전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자료들이 방심 속에 케멸되어 가고 있음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ISBN 89-7735-417-X